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1994. 12

徐 載 鎭

(北韓研究室長)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1980년대 말에 갑자기 붕괴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제 적절한 사회과학적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설명 중의 하나는 주민들의 가치의식의 二元化에 관한 것이다. 동구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은 私的인 선호와 公的인 선호라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公式的인 공간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만 私的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또 다른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던 까닭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의 外樣的 行動이 僞裝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즉, 難攻不落의 견고한 城으로 보였던 사회주의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고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던 사회저항세력이 雨後竹筍처럼 혁명적 세력으로 돌변한 것은 위장되어 감추어진 인민들의 저항의식이 분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蘇聯 및 東歐 사회주의권의 붕괴 원인에 관한 이러한 진단을 문제의식으로 삼아 북한에서도 외양적으로 표출되지 않은 사회의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사회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북한의 소설과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을 1차자료로 삼았다. 북한의 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은 客觀的인 자료로서 한계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한 결과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그것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잠정적이거나 일정한 유형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이 研究를 마무리하기까지 북한의 실상에 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귀중한 증언을 하여준 수십명의 북한 귀순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더욱 검증되어야 하고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4.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이 논문은 북한의 소설과 귀순자들의 증언을 자료로 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각 영역에서 蘇聯 및 東歐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주민의식의 변화 내용을 해석하는데 비교의 준거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이 공적 원칙의 준수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더 선호하며 理念的 가치보다는 物質的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한 결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사적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私的 自律化(privatization)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과 중간간부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치적 처벌 때문에 회피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처벌이 관대한 중간간부들에 대한 비판은 매우 공공연하다고 한다.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중간간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판한다면 김정일에 대한 順從도 이미 外樣的 순종에 불과한 것이다.

1.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적 자율화의 징후는 第2의 經濟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시장 및 지하 경제가 성행하고 생산수단이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북

한에서 個人所有主義가 성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간에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公的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다. 암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는 등 체제의 지배적 가치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60%에 가까우며 약 40%의 주민들만이 체제에 통합하여 기존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영역에서는 개인, 원초집단, 2차집단, 국가의 네 수준에서 모두 사적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관료제의 견고한 벽을 개인의 연줄을 활용하여 집단적 이익 보다는 개인 이익을 선호하는 逸脫行爲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엄격한 대외통제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화가 유입하여 사회주의 지배문화와는 이질적인 下位文化를 형성해가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는 서로 상호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의 정도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 소련 및 동구의 경우도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가 다른 영역에 비해 미약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정치적 저항에 대한 가혹한 처벌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동구 및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배이데올로기가 퇴색하고, 일정한 방향의 政治的 自律化가 나타나고 있다. 가혹한 정치적 통제하에서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양적 순종인 것이다. 외양적 순종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김정일과 중간간부에 대한 차별적 평가이다. 김정일에 대하여는 감히 비판을 못해도 중간간부들에 대하여는 매우 적대적이다.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중간간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판한다면 김정일에 대한 順從도 이미 外樣的 순종에 불과한 것이다.

4.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病理現象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지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이 국가의 公式 分配通路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나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

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체제개혁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고, 지도부가 통제할 수 없는 비공식 제도 및 의식체계가 공식제도 및 공식가치체계와 함께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북한에는 이제 체제비판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을 體制抵抗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은 反體制的 저항의식이 되기 보다는 물질주의적 實用主義에 더 가깝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갈등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6.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체제 변화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다. 革命的 理念으로 社會的 動員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의식이 팽배하다면 국가의 動員이테올로기는 설득력이 미약해질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에서 사상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된 요인도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하는 自由主義, 物質主義를 지향하는 가치의식이 발달한데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침체와 주민의 가치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7.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체제일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두 가지 주요 요인의 變移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개혁·개방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인과 상품 및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對外的 요인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침체라는 對內的 요인이다. 이들 두 가지 요인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할 경우 外部情報의 유입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경제회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본격 경제회생의 프로그램이 실천되기까지는 앞으로 당분간은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目 次

第 I 章 序 論	1
1. 문제제기	1
2. 의식변화의 분석틀: 私的 自律化	12
3. 자료	15
第 II 章 經濟領域에서의 사적 자율화	22
1. 第2經濟의 성행: 암시장 및 부업	23
2. 소유주의, 물질주의 및 拜金主義	39
3. 小結	50
第 III 章 社會領域에서의 사적 자율화	52
1. 개인적 수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53
2. 1차집단: 가족, 연인, 친구관계의 활성화	64
3. 2차집단 및 국가: 뇌물, 절취	86
4. 下位文化: 외국음악, 패션	100
5. 小結	105

第Ⅳ章 政治領域에서의 사적 자율화	107
1. 지배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개인주의적 實用主義.....	107
2. 選好偽裝과 外樣的 순종	123
3. 小結	144
第Ⅴ章 結 論.....	146

第 I 章 序 論

1. 문제제기

소비에트식 사회주의체제의 고전적 특징은 전체주의체제 (totalitarianism)로 적절히 인식되고 있다.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唯一 支配思想으로 군림했고, 시민사회의 조직은 해체되고 국가가 장악했으며,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集團主義로 대체되었다. 전체주의 사회주의체제의 목표는 시민사회와 개인주의가 폐기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생이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인이 시민사회를 재건하려는 의지마저 박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전개하였었다.¹⁾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체제의 원조인 스탈린이 사망하면서부터 금지되고 폐기되었던 개인주의, 시민사회, 자본주의의 싹이 다시 재생하기 시작하였다. 1953년 이후 폴란드, 헝가리 등 동구 사회주의 사회와 중국뿐 아니라 소련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변화의 하나

1) Zbigniew Rau, ed.,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Oxford: Westview Press, 1991), p.

가 私的 自律化(privatization)의 과정이다. 사적 자율화란 국가주의적, 집단주의적 행위 대신 개인주의적, 시민사회적 행위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며 脫國家化(destatization)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은 17~18세기에 서구 유럽의 절대군주제가 해체되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하겠다.²⁾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私的 自律化가 확산되어 자율적 영역이 확대된 결과가 第2社會(second society)로 불려졌다.³⁾ 제2사회란 기존의 체제밖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사회(parallel society)를 의미한다. 즉 제2사회란 암시장 등 제2경제권의 형성, 지하신문 사미즈다트(Samizdat)의 제작 및 돌려 읽기, 야학 등의 비공식 채널에서 공부하기, 교회를 지지하는 등의 자율적 행위를 하

2) Vladimir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p. 7, 13~14.

3) Elemer Hankiss, *The Second Society: Is There a Second Special Paradigm Working in Contemporary Hungary?* (Budapest: 1986); H. Gordon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89); David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Oxford: Westview Press, 1992), pp. 38~39; H. Gordon Skilling and Paul Wilson, eds., *Civic Freedom in Central Europe: Voices from Czechoslovakia* (London: Macmillan, 1991), p. ix.

여 당국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공식적 사회의 바깥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제2사회의 본질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자율을 추구하는 市民社會이다.⁴⁾ 제2사회의 성장은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집권, 전체주의, 집단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된 것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체계 모니가 제2사회의 발달에 의하여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개인들이 국가에 의하여 통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흥미와 에너지를 철회하는 것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이전까지 사회주의권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련, 중국, 폴란드를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에서 支配體制를 허물어뜨렸다. 그것은 특히 경제를 침체시키고, 기술진보를 방해했으며, 부패를 만연시키고, 도덕을 파괴하며, 새로운 계층을 형성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모든 구조를 위협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사회주의체제에서 사적 자율화가 발달하고 결국 체

4) 社會主義 市民社會의 개념을 발전시킨 사람이 존 키인이다. 존 키인에 의하여 홉스, 로크, 페인, 헤겔, 토크빌, 맑스 등에 의하여 다양하게 해석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 개념이 서방과 사회주의 사회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복원되었다. Joh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New European Perspective* (New York: Verso, 1988).

제유지가 실패한 원인으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로부터의 봉쇄에서부터 체제 자체의 비효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잘못된 가정보다 더 근본적인 요인은 없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自願論的인 창조성과 個人主義로 파악하고 체제운영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는 資本主義와는 대조적으로 社會主義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集團主義的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제도에 의하여 인간이 利己主義化 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인간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면 이기주의와 인간소외가 종식되고 인간성의 본질인 集團主義的 價値가 소생한다고 보았다.⁵⁾ 사회주의 혁명을 최초로 주도한 레닌은 ‘새로운 인간형’(new ma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레닌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인간의 심리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여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할 때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레닌은 정치권력이 자본주의적 착취를 제거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조시키면, 그것은 다시 인간의 의식과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조시킨다고 보았다.⁶⁾ 즉 사유재산제도

5) 대표적인 이론으로 Karl Marx, *Selected Writings in Sociology and Social Philosophy*, T. B. Bottomore, ed. (London: Penguin Books, 1963), p. 83을 볼 것.

6) Zbigniew Rau, "Human Nature, Social Engineering, and the

를 폐지하면 자연히 人間意識이 개조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스탈린은 제도의 개조와 병행하여 인간을 인위적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스탈린은 파블로프의 條件反射理論을 도입하여 사회주의체제가 제공하는 자극에 대하여 동일한 반사를 발하는 인간형을 창조하기 위하여 당과 국가 기구는 모든 가능한 직접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을 개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새로운 인간형은 과거의 반동적인 자본주의적 의식과 행위양식을 새로운 진보적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적 의식과 행위양식으로 교체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인간개조의 본질은 개인의 사상, 가치, 욕망과 행위를 거부하고 集團主義를 주입하는 것이다. 개인의 생활이 집단주의적 생활로 개조되는 것은 과거에 구현되지 않았던 집단주의적 잠재성이 해방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⁷⁾

이러한 사회주의의 인간개조이론에 의하면 사회주의체제는 생산수단의 集團化와 새로운 인간형의 창조가 병행할 때 성공 가능한 체제이다. 만약 처음부터 인간개조가 안되거나 후에 개조된 인간 의식이 다시 변화되면 사회주의체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집단주의적 인간관에 기초해있는 사회주의의 성패는 인간의 意識改造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Rau,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in Eastern Europe and the Soviet Union*, p. 32.

7) Ibid., p. 33.

니다.

북한에서도 스탈린과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일찍부터 인간개조사업을 전개하였다.⁸⁾ 북한의 인간개조사업의 목적, 내용, 방법이 종합되어 정리된 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총서 제6권’으로 1985년에 출판된 「인간개조리론」이다. 북한에서 인간개조이론은 “공산주의적 새 인간 육성에 관한 완성된 과학적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김정일은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지 않고서는 자연개조사업과 사회개조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높은 속도로 전진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⁹⁾

북한의 인간개조사업은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관계의 社會主義的 改造와 병행하여 인간의식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제도가 서면 낡은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는 없어지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

8) 사상교양, 계급교양은 1950년대 초반부터 김일성의 연설에서 발견되지만 인간개조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11월 전국 시, 군 당위원회 선동원들을 위한 강습회에서 김일성이 행한 연설 “공산주의교양에 대하여”에서 부터이다.

9) 사회과학출판사 편, 「인간개조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p. 1~2.

진다고 본다. 그러나 착취제도가 없어지고 물질문화생활이 높아진다고 하여 사람들의 共產主義的 改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에도 근로자들의 머리 속에는 착취사회에서 물려받은 낡은 사상 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게 되며 그 부작용도 계속된다고 본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이 낡은 사상의 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이 계속되는 조건하에서는 부르조아적 영향이 사회생활에 널리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오직 인간개조사업에 선차적 힘을 넣어야만 낡은 사상잔재의 腐植作用을 막고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¹⁰⁾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인간의 본질이 집단주의적인지의 문제와 인간의 본질이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개조가능한지의 문제이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사회주의의 가정은 대체로 오류임이 밝혀졌다. 라우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市民社會가 재등장하게 된 것은 맑스-레닌주의가 인간의 본질에 관한 이론으로서 실패했

10) 김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근로자』 (1978.4), p. 19.

을 뿐만 아니라,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고 지적했다.¹¹⁾ 라우는 동구 및 소련에서 맑스-레닌주의가 붕괴된 것은 그 체제가 인간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고수하는 체제는 모두 蘇聯이나 東歐와 같은 운명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라우에 의하면 인간개조사업에 의하여 인간이 개조될 수 있다고 믿는 맑스-레닌주의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오류이며 또한 인간의 본질은 외부의 강제에 의하여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창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강제력보다 내부의 창조력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것이다.¹²⁾

라우에 의하면 사회주의 정권 초기 集團化가 작동한 것은 파블로프식의 條件反射理論이 적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소련 농민들은 집단화에 반대하다가 수백만명이 국가에 의해 총살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또는 식량을 몰수당하여 집단 餓死하는 등의 방법으로 희생되었다고 한다. 또한 인간개조가 효과가 있었던 것은 集團主義的 生活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 속에서 개인이 정치적·직업적 上昇移動을 추구할 수

11) Rau, "Human Nature, Social Engineering, and the Reemergence of Civil Society," p. 45.

12) Ibid., p. 46.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이며, 또 새로운 제도에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주어지는 새로운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스탈린체제와 같은 가혹한 체제하에서도 인간의 본질은 個人主義的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인간관과 인간의 본질과의 괴리를 더욱 심화시켜 私的 자유회를 발전시킨 것은 체제의 구조적 변화이다. 이것은 곧 시민사회의 발달과도 관련되는 요인인데 蘇聯 및 東歐의 경우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³⁾ 전체주의적 획일적 사회통제를 어렵게 하고 시민사회와 개인 자율성의 발달을 촉진시킨 요인 중의 첫번째 것은 社會構造의 分化이다. 스타르에 의하면¹⁴⁾ 소련사회에서 도시화의 진전, 직업의 분화, 교육수준의 향상, 개인선택 범위의 확대,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 매스컴의 발달, 여론의 영향력 확대 등의 요인에 의하여 사회가 다원화되었다고 한다.

두번째 요인은 經濟沈滯이다. 경제가 침체하여 생필품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私的 경제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사적 경제영역의 확대는

13)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Free Press, 1992); Gale Str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14)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Policy*, vol. 70 (Spring 1988).

사회주의체제에서 유일한 고용주였던 국가로부터의 독립과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⁵⁾

세번째 요인은 西方世界の 介入이다.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민사회운동이 발달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는 서방의 집요한 浸透戰略이었다. 미국, 캐나다, 소련과 동구 국가를 포함한 유럽의 35개 국가간에 1975년에 합의된 헬싱키 선언은 소련에게 2차대전 이후의 국경선을 확인해주는 대가로 소련과 동구의 인권문제를 명문화함으로써 소련과 동구에 헬싱키 감시단체들을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다.¹⁶⁾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적 자율화를 촉진시켰다.

북한의 경우는 소련 및 동구의 경우와는 그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도 도시화의 진전, 직업구조의 분화, 교육수준의 향상, 신중간계급지향적 가치의식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측면의 社會構造 分化가 있었다.¹⁷⁾ 둘째, 북한의 경우도 경제침체가 가속화되어 주

15) Jacques Rupnik, "Totalitarianism revisited," in Keane, ed, *Civil Society and the State*, p. 276.

16)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장희, "Helsinki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統一問題研究」, 第1卷 3號 (1989 가을); Gale St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p. 150;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Oxford: Westview Press, 1992), p. 36.

민들의 삶의 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경제침체로 말미암아 생필품 획득이 개인의 수단에 맡겨진다면 국가권위의 실추와 개인주의의 발달이 조장될 것이다. 셋째, 중국이 개방되면서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온 정보, 상품, 자본주의적 암시장의 성행이 주민들의 價値意識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한다면 외부로부터의 情報流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지난 반 세기 동안 인간개조사업을 추진해온 북한사회에서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어떻게 사적 자율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比較社會主義的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소련에서 70여 년 간의 인간개조의 실험이 실패하였고 동구와 중국에서도 30여년의 실험 후 사실상 포기한 시점에서 북한에서는 인간개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사회의 보편성, 사회주의체제의 보편성을 넘는 북한 고유의 특수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북한에도 예외없이 世界史의 보편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17) 자세한 논의는 徐載鎭, “北韓社會 階級構造의 再編과 社會變動,” 民族統一研究院,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참조.

2. 意識變化의 분석틀: 私的 自律化

意識의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는 정신(mind)을 통한 인간의 인식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이념, 가치, 세계관, 사상, 인성 등 여러 가지 개념과 중첩되기도 하고 혼용하여 쓰이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이 연구에서 의식의 개념은 價値意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가치의식이란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일상생활에서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옳은 것, 나쁜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의식의 개념은 행위의 개념과 분리하기 어렵다.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자연적 환경에 의하여 인간의 의식 형성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의식에 기초하여 인간의 행위가 유발된다. 이 3자를 엄격히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한 엄격한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의식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되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조건, 의식에 의하여 유발되는 행위까지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 사회의 변화의 맥락에서 주민의식의 변화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가치의식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분석틀 설정을 용이하게 하고 북한에서의 의식변화의 내용에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부분적으로 比較社會

的인 方法을 사용하고자 한다. 즉,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의식변화의 내용을 살펴본 후 그러한 변화가 북한에도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에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일반적 흐름이 집단주의적 公的 利益보다는 점차 개인주의적 물질주의적 私的 利益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주의 또는 전체주의가 체제의 원형인 북한사회의 가치의식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로서 公的 부문과 私的 부문의 변화의 패러다임(public-private paradigm)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⁸⁾

이 글에서 公的(public) 부문이란 집단주의적 국가목표를 추구하는 행위 및 공공기관들을 지칭한다. 公人은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며 각 개인은 공인으로 행위해야 하며 개인 이익은 국가 이익의 하위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공적 부문은 주로 중앙정부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적인(public) 것은 곧 공식적인(official) 것으로 된다. 私的(private) 부문은 공적 부문의 반대어로서 공적 영역의 침해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정의되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18) Shlapentokh는 이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소련인들의 價値意識 변화를 분석하였다.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이 연구의 관심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얼마만큼 공적인 것에서 사적인 것으로 이행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며 그러한 현상을 사적 자율화(privatization)라고 개념화하고자 한다. 私的 自律化란 공적인 것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과 사적 가치의 추구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공적 소유에서 사적 소유로의 이행, 사회적·정치적 측면에서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로의 이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적 자율화의 현상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적 자율화의 첫번째 경우는 공적 영역의 이익을 私的 利益으로 전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개인부터 국가까지 모든 수준의 사회구성 단위가 공히 사회적 및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치의식이 변화하여 공적 이익보다는 개인 이익 추구가 우선시된다면 그것은 가치의식이 변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개인들이 국가의 이념적 목적에 충성하기보다는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에 탐닉하여 일상생활용품의 사적 소유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 제2의 사회(second society) 또는 제2의 경제(second economy)를 형성하고 암시장 또는 지하경제에 탐닉하는 경우; 국가부문 엘리트가 공직을 이용하여 절취(pilfering), 뇌물수수 등을 통한 個人利益을 추구하는 경우; 제2의 대중문화, 비공식적 개인행위에 탐닉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사적 자율화의 두번째 경우는 공적 영역인 국가로부터 사적 영역이 분리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현상으로서 市民社會의 발달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첫번째의 단계가 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서 국가의 개입이나 강제가 배제되는 영역이다. 시민사회의 개념은 중세말의 역사적 현상으로서 시민들이 絶對君主의 속박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사회주의권에서 시민사회 개념은 사회주의에 대한 抵抗의 개념으로서 성장했으며 결국은 1980년대 후반에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 중의 어느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이 글에서는 가치의식이 변화한 것으로 간주한다. 체제의 각 부문에서 사적 자율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사적 자율화의 과정을 경제영역, 정치영역, 사회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1차자료는 북한의 소설과 북한 귀순자의 증언이다. 소설은 인간의 의식을 심층깊이 들여다 볼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을 분석하는데 있

어서 매우 적절한 자료이다. 그러나 정치적 계몽을 주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북한의 소설이 얼마만큼 북한의 사실을 반영하느냐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 소설이 주제나 소재의 선정면에서 政治性和 啓蒙性이 강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1980년 이후의 북한 소설은 상당한 정도로 이전 시대의 소설과 다르다. 1967년 이후 유일사상체계가 확립되면서 북한의 소설은 김일성 家系의 이상화, 김일성과 김정일의 형상화를 위한 「불멸의 역사」, 「불멸의 향도」, 「불멸의 총서」 등의 연작과 그와 유사한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¹⁹⁾ 이들은 대체로 主題 자체가 픽션적이고 북한의 현재의 현실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社會科學的 資料로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 1월 제3차 조선작가동맹대회에서 김정일이 1980년대 북한 문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이후 북한 소설은 상당히 변화하였다. 이 지침에서 김정일은 “현실은 작가들에게 있어서 창작활동의 기본 무대이다. 모든 작가들은 들끓는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쌓는 한편 대중 속에서 배출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참된 전형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 끝없이 충직한 숨은 영웅들을 널리 찾아내어 그들의 고

19)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pp. 256~75.

상한 풍모와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훌륭히 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²⁰⁾ 정치적인 주제를 강조한 것은 이전 시대와 같지만 현실 속에서 생활체험을 소재로 해야 한다는 것은 큰 변화이다. 아마도 이러한 문예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정치성과 계몽성이 뛰어난 소설이라도 藝術性이 부족하여 읽혀지지 않으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북한의 文學評論家 김려숙이 적절히 지적한대로

소설은 읽혀야 한다. 읽히지 않는 소설은 이미 소설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잃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 소설가에게 소설 창작을 강요할 수 없듯이 독자에게 소설을 읽을 것 역시 강요할 수 없다. 우정 생각하자고 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읽으면서 또 읽고나서 자연히 자기 운명, 자기 생과 관련된 사색을 하게되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매력있는 주인공과 깊이있는 인상적인 묘사를 가슴속에 새겨두거나 물어두는 것이 독자들이다.²¹⁾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볼 때 1980년의 문예정책의 변화는 大衆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학적 사실성을 도

20) 김정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작가들의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기량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1980년 1월 8일 제3차 조선작가동맹회의에서 행한 담화문).”

21) 김려숙, “소설의 철학적 깊이와 분석적인 세부묘사,” 「문학작품집: 1987」 (평양: 문예출판사, 1989), pp. 271~73.

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980년 이후 북한의 소설은 북한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비범한 주인공이 아니라 극히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만나는 보통사람을 등장인물로 하여 현실에 밀착한 소재로 소설을 구성하고 있다. 북한의 소설이 허구적인 소재에서 日常生活의 소재로 돌아왔다는 것이 북한의 문학평론가 김려숙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소설의 생활세계로부터 시작하여 어느덧 자기의 생활세계로 무대가 옮겨지고 작중인물들의 생활태도와 운명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자기자신과 자기주위 인간들의 생활방식과 운명문제에로 사색이 심화되는 소설, 바로 이러한 소설이 흥미가 있으며 여운이 있는 깊이있는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²⁾

1980년 이전의 소설들이 현실을 마냥 粉飾하고 호도하였다면 80년대의 소설은 객관적인 문제의식과 사실주의적인 상황묘사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大主題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肯定教養的이고 계몽적이다. 소설 구성의 측면에서도 부정적 인물이 작품의 결론 부분에 가서는 긍정적 인물의 감화를 받거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현지도 등의 계기를 통하여 改過遷善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황묘사의 많

22) 위의 글, p. 273.

은 부분에서 북한의 현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事實性이 많아졌다는 점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김려숙은 “소설가가 아무리 심오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종자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생동하고 뜻이 깊게 묘사하지 못한다면 소설작품을 창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소설가는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는 능력, 묘사정신과 함께 생활을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보여주는 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특히 생활의 본질에 육박하여 그것을 밝혀내는 데서 힘있는 수단으로 되는 깊이있는 분석적인 세부묘사를 잘 할 수 있는 기교를 소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³⁾

그러나 북한 문학에서 아무리 사실성이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肯定感化教養의 기본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소설에 나타나는 사회일탈현상 등 일부 부정적인 소재는 북한의 암울한 현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엄격한 검열 때문에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표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소설에서 부정적인 사실이 소재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북한의 실제 사실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소설이 북한에 관한 사회과학적 자료로 완벽하지는

23) 위의 글, pp. 270~71.

않지만 소설에서 사실적 자료를 추출하는데 있어서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심층부를 관찰하는 데에는 소설보다 더 좋은 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 마리의 제비가 강남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식의 귀납법적 논리에 의거하여 볼 때, 한 편의 소설의 한 장면의 묘사에서나마 드러난 ‘事實’은 북한 사회 전체의 한 단면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이 논문의 목적이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이라기 보다는 문학작품을 자료로 북한사회를 들여다보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해설보다는 작품에서 나타나는 事實的 描寫를 북한사회의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인용하는데 그칠 것이다.

이 연구는 북한 귀순자들의 증언도 동시에 자료로 사용하였다. 귀순자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한 증언을 할 때 귀순동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기관의 편견이 포함되기도 하겠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意識世界에 대한 증언은 비교적 객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소수의 증언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다수 귀순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내용을 연구의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즉 귀순자의 증언을 귀순자의 증언으로 교차확인을 거친 다음에 자료로 사용한다.

이 연구는 또한 소설과 귀순자 증언을 별개의 자료로서가 아니라 상호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즉 소설에 나타난 價値意識을 귀순자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하고 귀순자의 증언에 나타난 가치의식을 소설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第 II 章 經濟領域에서 私的 自律化

사회주의 체제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하나가 경제 부문에서 私的 영역의 점진적인 성장이었다. 고전적인 사회주의체제하에서 경제의 사적 영역은 모두 폐기되었으며 금지되었음에도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과정이란 바로 경제영역에서 사적 영역의 성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경제영역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졌다.²⁴⁾ 경제영역에서 私的 自律化를 촉진시킨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제가 침체했다는 사실이며 또한 그에 기인하여 국가 권위가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경제가 점차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자 사회주의 국가는 더 이상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명백히 인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생필품획득을 위해서 추구한 것이 사적 경제영역이다. 이 章에서는 사적 경제를 제2경제의 성행과 소유주의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4)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433.

1. 第2經濟의 성행: 암시장 및 부업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公的 세계가 사적 자율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현상이 私的 경제영역의 성장이다. 사적 영역의 경제는 공적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地下經濟(black economy) 또는 제2경제라고 불린다. 제2경제는 공적 영역의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경제행위를 의미한다. 사회주의 경제는 지금까지 제2경제 덕분에 유지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제2경제가 성행했다. 케머니에 의하면 사실상 모든 사회주의권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형식이든 제2경제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²⁵⁾

붕괴되기 이전 1980년대 소련의 경우도 제2경제(second economy) 또는 비합법적인 경제행위가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²⁶⁾ 소련의 제2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 부문에서 個人所有의 터밭이었다. 소련에서 경작면적의 2~3%를 차지하는 터밭이 전체 농산물의 3분의 1 (육류의 22%,

25) Istvan Kemeny, "The Unregistered Economy in Hungary," *Soviet Studies*, vol. 34, no. 3 (1982), pp. 349~66.

26) Gregory Grossman, "The 'Second Economy' of the USSR," *Problems of Communism*, vol. 26, no. 1 (1977), pp. 25~40.

우유의 32%, 채소류와 감자의 60%)을 생산했다. 농민들이 터밭에 투자하는 시간은 집단농장과 국영농장의 절반에 달하며 농민수입원의 30%를 차지했다. 결과적으로 개인소유 터밭의 생산력은 집단 및 국영농장의 3~5배 또는 그 이상이었다. 약 2천만에 가까운 도시가구 또는 약 6천만의 인구 또는 도시인구의 3분의 1이 농촌에서 터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도 채소, 과일, 감자 등을 재배했다고 한다.

두번째 형태의 제2경제는 소비재의 地下生産이다. 이들은 대부분 국가부문 경제의 설비와 원자재를 훔쳐 생산하며 마치 外製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영상점망을 통해 판매된다는 점에서 公式經濟와 연계되어 있었다.

세번째 형태의 제2경제는 副業(moonlighting)이다. 가장 성행하는 부업의 업종은 아파트 및 가전제품의 수리, 운수업, 상업, 프리랜스 건축업 등이다. 자동차 수리의 약 60%, 구두 수선의 50%, 아파트 수리의 40%, 가전제품 수리의 30%가 부업자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한다. 프리랜스 건축업자들은 하루에 16~18시간을 일하면서 비공식 가격으로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地下經濟人들이었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公式部門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건축을 했다. 이들 외에도 엔지니어, 교사, 학자들이 휴가를 이용하여 팀을 구성하여 건축을 했다고 한다.²⁷⁾

네번째 형태는 暗市場이다. 암시장(black market)은 공직을

이용하여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私的 자율화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암시장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직장의 생산물을 절취하는 행위(filchers)이며, 둘째는 외교관, 선원, 운동선수, 학자, 관리인, 기업인 등이 해외여행에서 획득한 물품을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fences)이며, 셋째는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귀한 상품을 빼놓았다가 특수 고객에게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appropriators)이다. 83%의 소련인들은 국영상점에서 구하지 못하는 물건을 암시장에서 비싼 값으로 구입했다고 한다. 모든 계층의 소련인들에게 암시장은 일상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였다.²⁸⁾

이러한 제2경제 행위는 모두 공적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측면에서 경제영역에서 私的 自律化를 획득하였다. 사회주의에서 유일한 고용주는 국가이며, 모든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국가의 고용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제2경제가 성장하여 개인이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조직적으로 독립한다는 것은 체제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7)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191~94.

28) *Ibid.*, p. 212.

나. 北韓의 경우

북한에서 가장 두드러진 형태의 제2경제는 장사 또는 암시장이다. 동시에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에서 현저한 변화의 하나는 암시장을 통한 生必品の 조달이다. 암시장은 1980년대 초 서서히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에는 걸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에는 국영상점, 직매점 외에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으로서 10일마다 서는 농민시장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 불법으로 유통되며 언제 어디서나 개설되기 때문에 암시장화된 것이다. 10일장이 每日場으로 바뀐 때는 1989년 무렵이라고 한다.²⁹⁾

암시장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거시적으로는 소련 및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經濟沈滯에 기인하지만, 경제침체에 대응한 북한 당국의 몇가지 정책변화가 암시장의 발달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경지대의 각 도, 각 군에서 인접 중국 연변지역과 자유무역을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邊境貿易이 활성화되었다.³⁰⁾ 이를 계기로 1984년 경부터 중국의 교포상인들이 유입하여 자본주의식 장사를 가르쳐 주었다. 중국의 조선족들이 중국의 공산품을 가지고와서 북한

29) 귀순자 박수현(1993.10.11 귀순)과 최명학(1994.2.13 귀순)의 증언.

30) 귀순자 윤용(1993.10.11 귀순)의 증언.

의 골동품, 해산물 등으로 바꾸어가면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을 보고 북한 주민들이 物物交換式의 장사를 배운 것이다.³¹⁾

북한에 암시장을 발달시키는 계기가 된 또 하나의 정책은 1984년부터 추진한 8·3인민소비품생산운동으로서 이 운동이 가내수공업을 장려하면서 개인부업과 물물교환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암시장이 더욱 발달하게 된 두번째 전환점이 된 해는 1989년인데 제13차 평양축전이 있었던 해이다. 이 때 중국상품이 평양 주민들에게 생필품으로 보급되었고, 컬러 텔레비전, 냉장고 등이 國定價格으로 국영상점에서 팔렸다. 영화축제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영화를 많이 상영했으며 외국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 방영하기도 했다. 이 때 외국의 문물이 대단히 많이 소개되었던 것이다. 평양축전이 암시장 발달에 미친 두 가지 측면으로서 첫째는 간부들이 배급용 중국 상품을 횡령하여 暗市場에 유출시켰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또 다른 한 측면은 북한이 무리하게 평축을 준비했기 때문에 경제가 위축되어 주민들의 생필품 조달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부 지방공장들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자 생필

31)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내 것만 있으면 산다는 個人主義的 의식의 확산과 함께 장사가 성행하게 되었다고 한다.³²⁾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출처는 대체로 네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직장에서 좀도둑질한 것, 둘째는 각 지방별 특산물들로서 다른 지방에서 옮겨온 것, 셋째는 密輸를 통하여 중국 및 외국에서 유입된 것, 넷째 국영상점에서 싸게 산 물건 및 외화상점에서 구입한 귀한 물건들이라고 한다. 북한의 각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은 식량과 기름만 수입하도록 허용되나 이들이 밀수입한 상품들이 암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이 중에는 채널이 미봉된 라디오 등도 포함된다고 한다.³³⁾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 품목은 식량, 고기, 신발, 비누, 내의류, 술, 담배, 손수건, 손거울, 화장품, 학용품 등 각종 生必需品인데 中國製 생필품이 잘 팔린다고 한다. 이 중 암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단일 품목은 옥수수라고 한다. 쌀은 워낙 귀해서 구할 수 없고 강냉이가 주식으로 되어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장사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도시상인들이 공산품을 메고 농촌으로 와서 강냉이와 바꾸어가는

32) 귀순자 고청송(1993.6 귀순), 박수현, 윤웅, 백영길(1994.3.11 귀순), 여만철(1994.4.30 귀순)의 증언.

33)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것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몇가지 품목의 장사를 하는데 북한의 지방도시의 경우 가정에서 판매하는 품목은 술(밀주), 두부, 떡, 단물, 돼지고기 등의 한 두 가지씩이다.³⁴⁾

암시장에서 가격의 기준은 대체로 옥수수를 단위로 결정된다고 한다. 옥수수가 돈이라는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옥수수 1kg의 國定價格이 7~8전인데 암시장에서는 5~6원 정도 하나 겨울철에는 10~15원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암시장에서 공산품 가격의 형성은 우리나라의 전당포에 해당하는 수매재생상점이 주도한다고 한다. 수매재생상점에서 물건값을 흥정하게 되는데 그 값이 암시장 시세와 비슷해진다고 한다.

암시장 가격은 대체로 國營商店의 10배 정도인데 품목에 따라서는 50~60배, 100배에 달하기도 하지만 거래는 활발하다고 한다. 이렇게 물건값이 비싸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까닭은 북한에는 이제 월급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에 귀순한 여만철 일가의 증언에 의하면 世帶主의 공식적 직업의 월임금이 70원 정도인데 가정주부가 암시장에서 장사를 통하여 얻는 수입이 300~400원 정도이다.³⁵⁾ 공식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가지 형식의 副業을 가

34) 귀순자 고청송, 백영길, 윤용, 박수현의 증언.

35) 귀순자 여만철의 증언.

지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公式經濟의 몇배에 달하는 규모의 地下經濟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만철 가족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전주민은 장사꾼이며 전지역이 식량 및 물물교환의 장터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역전, 극장앞, 공원앞 등에서 암거래가 성행하는데 한 사람은 망보고 한 사람은 장사하면서 안전원이 오면 숨기고 피하고 하면서 몰래 장사를 한다.³⁶⁾ 高價品の 경우 빈몸만 나와서 물건 구매자를 만나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래하기도 한다고 한다.³⁷⁾ 암시장을 규제해도 옮겨다니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유동장 마당이라고도 불린다고 한다. 실제로 암시장이 없으면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암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암시장에서 구입하는 생필품의 비율은 매우 높다. 공산품의 80%, 주식으로 되어 있는 옥수수의 60% 정도를 암시장에서 구입한다고 한다.³⁸⁾

暗市場이 가동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당국의 단속도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암시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도 별 효력이 없

36)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37) 귀순자 김길송(1992.12.30 귀순)의 증언.

38) 귀순자 고청송, 최명학, 윤웅의 증언: 1991년 4~12월 사이에 북한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前 조총련계 출신 제일교포학자 이영화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의 80%를 암시장에서 구입한다고 증언한 바 있음.

다. 당국에 적발되면 뇌물주고 풀려나고 말기 때문이다.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가 전문장사꾼으로서 전체인구의 약 3~4%에 해당된다고 한다.³⁹⁾ 이들은 직장을 나가지 않는 사람들로써 퇴직자들, 병 때문에 勞動不能者로 판정받아 사회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뇌물을 주고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노동불능자로 판정받은 사람들, 가정주부,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휴가를 얻거나 출장의 명분을 얻어 다른 지역으로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國境地帶에 나가서 중국의 장사꾼들로부터 양말, 신발, 시계 등의 상품을 수천개 구입하여 북한의 전역으로 다니며 2배 정도의 비싼 값으로 되팔고, 황해도 등지에서는 쌀을 사서 쌀이 귀한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비싼 값으로 되파는 방식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돈을 많이 벌면 주위의 친인척, 친구들을 끌어들여 社會保障 대상자로 둔갑시켜 동업을 하거나 판매망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지역의 당간부에 뇌물을 주어 인수원이라는 직업을 얻어 공식적으로 국경지역을 자주 다니면서 부업형의 장사를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의 안전원, 보위부원 등에게 장사용으로 쓰는 오토바이나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선물을 주

39) 귀순자 윤용의 증언.

기도 하여 親分關係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규제도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본을 따르는 집단이 대학생 및 대학교수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자유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구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경부근을 다니면서 장사를 한다고 한다.

암시장, 밀수, 물물교환 등의 상업행위가 확산되면서 자본주의적 이윤을 목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專業商人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는 1980년대 들어 각 기관, 기업소의 외화벌이가 강화되면서 노동자, 농민, 안전원, 보위원 등 신분에 관계없이 각 계층에 거간꾼이 발생하여 평양의 호텔, 식당 등에서 외국인, 외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거간을 한다고 한다.⁴⁰⁾

두번째 집단은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서 전체인구의 50% 정도가 이 그룹에 해당된다고 한다. 많은 경우는 國境地域을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터밭에서 자란 옥수수를 팔거나 공장이나 농장에서 절취한 물건을 팔기도 하며 집에서 만든 음식, 술 등을 파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대체로 기본군중의 일부와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身元文件에 낙인찍힌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 보다는 장사를 하

40)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여 돈을 버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즉,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경제적으로 남몰지 않게 사는 것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40% 정도의 인구가 북한체제에 충성하고 통합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간부계층을 포함한 核心群衆 또는 基本群衆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성분이 좋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좋은 직장을 얻어 출세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장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權力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더 큰 규모로 장사를 하기도 한다. 가령, 권력을 이용하여 국영상점에서 국정가격으로 물건을 빼내거나 공장에서 물건을 차로 실어 내어 친척들을 동원하여 암시장에 내다파는 방법으로 장사를 한다고 한다.

집단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사를 안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80년대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집을 짓고 外製 家電製品을 사들이고 자식들을 대학 공부 시키며 이웃에 돈을 꾸어줄 정도로 여유 있게 잘 살게 된 것을 보고 1990년대에 들어서에는 장사를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하는 정도로 확산이 되었다. 여만철씨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에 있을 때의 소원은 장사를 실컷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암시장의 한 형태로 密輸出도 성행한다. 중국거주 조선족

들에게 북한의 병품, 자기류, 은장도 등 장신구, 불상, 고서화 등 골동품을 高價로 반출한다고 한다.⁴¹⁾ 1987년 말 126연락소(대동회사, 최근 대진회사로 변경)가 북한에서 최초로 골동품을 거래한 후 주민들간에 골동품 암거래가 빈번해지자 1993년 9월 29일 金正日의 이름으로 포고령을 내려 골동품을 매매하는 사람은 死刑에 처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보유한 골동품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88년 경부터는 도굴품들이 암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개성, 해주 등에서 도굴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도자기, 금은비녀, 고화 등이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화교, 재일교포 등에 판매되어 중국, 일본으로 密搬出된다고 한다. 이밖에도 약초류(세산, 백봉룡, 창출), 수산류(조개류, 도루묵, 명란, 성게, 광어), 골동품(그림, 도자기, 불상, 옛장 도장, 벼루), 보석류(금, 다이아몬드, 홍보석), 식품류(갯, 송이버섯, 고사리) 등이 거래된다.⁴²⁾

장사외에 제2경제의 한 유형은 副業이다. 북한 市, 郡 黨 부장급 이상 간부들은 독립된 「땅집」(단독주택)이나 일정한 유희공간이 있는 공용아파트에 기거하는데 콩기름찌꺼기, 쌀겨 등 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을 활용하여, 집집마다

41)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42) 김명철(1993.7.15 귀순)의 증언.

지하 돼지우리를 만들어 3~4마리 정도의 돼지를 기르는 풍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풍조는 군부대에서 군관 가족을 대상으로 연1회 60kg 이상 돼지 한 마리씩 소속 군부대에 헌납하는 조건으로 150~250평 정도의 부업밭 운영 자격을 부여하여 돼지를 기르게 함으로써 同 군관가정에서 헌납용 이외 1~2마리의 돼지를 더 사육하여 의외의 큰 돈을 벌이게 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현재 북한에서 돼지는 1kg당 國定價格이 7원이나 장마당 가격으로 45~6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0kg 큰돼지 1마리이며 일반노동자 2년 노임을 상회하는 30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⁴³⁾

도시에서 사는 퇴직 여성들은 재봉, 편물, 신발때우기 등의 가내봉재업을 농어촌에 사는 퇴직여성들·어부들은 송이버섯, 더덕, 두릅, 해삼, 멧게, 조개, 낙지 등을 각각 채취해 중국상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⁴⁴⁾

북한은 암시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형태의 非社會主義的 현상의 확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조치를 취했으나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 첫째, 북한은 암시장의 성행에 근본 원인이 되는 중국 상인의 유입을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다. 중국 동포들이 북한거주 친척 방문을 이유로 북한을 방문, 한국 상품을 비롯한 외국상품을 공공연히 반입하여 밀매하

43)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1994.10), pp. 20~21.

44) 귀순자 윤용의 증언.

고, 주민들에게 외국소식을 전해주는 情報傳達者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1991년 경에 중국인의 장사를 금지시킨 적이 있다. 이 조치에 대해 중국상인들이 무산 郡黨廳舍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고 또한 중국의 길림성 당국도 항의를 하자 다시 중국인의 장사가 재개되었다고 한다. 이 이후에는 중국인을 위한 장마당을 따로 설치하여 주었다고 한다. 일명 ‘中國市場’이라고 불리는 이 시장은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평북도 신의주, 자강도 만포, 양강도 혜산, 함북도 남양, 회령 등 중국과 接境하고 있는 모든 군에 1개소씩 있는데 모두 20여개가 된다고 한다. 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는 중국 교포들은 북한 세관원으로부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받고, 도보위부 國境課 소속 통검반(4명 1개조)으로부터 성경, 외국잡지 등 불온책자와 라디오,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등의 소지유무를 검사받은 후 사회안전부원의 감시하에 지정판매대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을 차단하고 장터사용료 명목하에 세금도 징수하는 多目的 효과를 노리고 있다.⁴⁵⁾ 박수현에 의하면 이것은 또한 북한 주민들의 장사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

둘째, 북한은 ‘비사회주의 (타파)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

45) 「內外通信」, 週刊版 第844號, 1993.4.22.

하기도 하였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는 韓·中修交 직후인 1992년 10월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을 비롯한 각 시, 도 지역별로 검찰, 사회안전부, 당위원회, 사로청, 職盟 등 5개 기관에서 각각 同數의 인원을 차출하여 구성되었다. 특급기업소의 경우 약 30명, 접경지역인 신의주에는 큰 기관이나 기업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총 300명 규모의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기득권층의 방해로 실패하고 1993년 말에 해체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자체 판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 도별로 ‘마감총화’를 실시하고 이 사업을 끝마쳤다는 것이다. 마감총화는 15명으로 구성된 道 비사회주의 그루빠가 소속 시, 군을 순회하며 사업 결과를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密酒製造를 근절시킴으로써 식량낭비를 막았고 증가일로에 있던 불량 청소년들의 수를 줄였으며 암거래 및 거간행위를 억제시키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는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하였다는 것 등이 성과사항으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사업전개 1년여 만에 이 조직의 활동을 사실상 중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비리를 깨면 켈 수록 간부들의 비리가 고위층 간부에게까지 확산되었음이 확인되고 동시에 인민들에게 간부들의 비리가 알려지게 되자 김정일의 지시로 그만두었다고 한다.⁴⁶⁾

또한 ‘그루빠’ 요원들이 실적 위주로 일을 추진하여 10여 년 前 사건을 문제삼아 주민들을 마구 체포하는가 하면晝夜間을 막론하고 사무실, 작업장과 일반 가정까지 불시에 들이닥쳐 주민들의 생산품 절취여부 및 불법 거래, 한국산 물품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고 이를 구실로 각종 뇌물을 수수해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대부분이 비사회주의 그루빠 활동에 대해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른 간부층은 제외된 채 먹고 살기 힘들어 할 수 없이 법규를 어긴 일반 노동자들만 애꿎게 처벌을 받았다”는 등으로 비판하고 있어 이 사업을 서둘러 중단시켰다는 것이다.⁴⁷⁾

김정일은 장사꾼의 증가와 암시장의 성행이 사회주의체제와 주민의식에 有害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형식의 통제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가 희생되어 정상적인 배급계통을 통하여 생필품을 공급하지 않는 한 물리적인 통제만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암시장을 통하여 장사를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의 비공식적인 자본주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46) 귀순자 윤웅의 증언.

47) 「內外通信」, 週刊版 第836號, 1993.2.25; 「內外通信」, 週刊版 第913號, 1994.8.11.

2. 소유주의, 물질주의 및 拜金主義

경제의 私的 자율화의 또 하나의 측면은 所有主義 또는 소비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의 확산이다. 모든 생산수단이 국유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적 소유주의의 확산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소련인들은 국가재산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지만 私有財産에 대하여는 맹렬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다. 소련사회에서 소유욕의 증대는 터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지도자들은 터밭을 반대했으나 농촌에서 기근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방치했으며 브레즈네프 정권은 터밭의 개인소유를 1977년의 개정헌법에서 오히려 장려하였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소, 돼지, 닭을 사육해서 국가의 식품공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도시인들에게까지 개인 터밭을 허용함으로써 ‘시골별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의 결과는 소련인들로 하여금 도시에서의 공적인 세계로부터 더 은둔할 수 있는 사적인 세계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소련은 또 콘도미니엄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들로 하여금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하

였다.

이외에도 기술의 발달로 1980년대 중반 쯤에는 10%의 가구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냉장고, 텔레비전, 라디오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많은 수가 녹음기, 카메라,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⁴⁸⁾ 또한 이러한 耐久消費財를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련인들은 많은 수의 私有財産을 가지고 있다.

나. 北韓의 경우

생산수단이 국유화, 또는 집단화되어 있는 북한에서도 個人所有主義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개방과 동시에 급속히 산업화되면서 국경을 통해서 중국산 의류, 일본 및 남한제 가전제품이 북한에 스며들면서 주민들의 所有欲求를 자극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각 부처 및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무역회사들(현재 260여개로 추정)이 密貿易으로 들여온 가전제품, 생활용품들은 주민들을 더 이상 주체사상의 이념에 묶어 놓기 어려운 物質主義를 확산시키고 있다.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냉장고, 재봉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48)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162~63.

한다.⁴⁹⁾ 1967년부터 시작된 시베리아 벌목사업은 최근들어 북한전역에 열기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벌목노동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김없이 칼러 텔레비전, 냉장고, 재봉틀, 운동복 등 귀한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베리아 벌목노동이 높은 경쟁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러한 소비물자에 대한 요구증대는 식량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북한의 내부는 경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북한 북경을 통하여, 그리고 시베리아 벌목노동에서 귀국하는 노동자들을 통하여 유입되는 소비품이 주민들에게 所有慾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9월 5일에 입법화된 북한의 민법과 1990년 10월 24일에 입법화된 가족법에서 북한은 개인의 소유권과 그 소유의 상속을 허용하였다는 것은 북한당국이 이러한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조선」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한 국민의 개인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는 過渡的 社會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⁰⁾

민법 제58조에서 個人所有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49) 한겨레신문이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현장 취재한 내용, 「한겨레신문」, 1994.5.22.

50) 「민주조선」, 1991.5.23.

위한 소유라고 정의하고,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경리를 비롯한 개인 부업 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 밖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59조에서 공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정용품, 그 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63조에서는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相續權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되지만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족성원이나 그 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가족법의 제5조에서는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1992년 4월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위의 소유권과 상속권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헌법 제24조에서 터발경리를 비롯한 주민의 개인 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도 개인소유에 속하며 국가는 근로자들의 個人所有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法的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였다.

개인소유주의는 동시에 拜金主義를 수반하고 있다. 암시장을 통하여 생필품을 구입하고 동시에 이득을 올리는 직접적

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급격히 달라졌다. 암시장이 발달되기 전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돈의 效用價値가 없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당적으로 인정받아 공적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돈이 있으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대학에 입학도 할 수 있고, 웬만한 문제도 뇌물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돈의 위력이 강해졌다. 성분이 좋은 핵심계층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은 이제 당원이 되는 것보다는 돈버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다고 한다.⁵¹⁾

돈의 가치를 모르던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알게 되자, 그리고 돈의 效用性이 높아지자 북한 주민들의 돈에 대한 의식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合營會社가 설립되고 외화가 유통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돈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었다고 한다.⁵²⁾ 남녀간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전에는 정치적인 토대를 중시했으나 지금은 재산을 중시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잘사는 집 딸”과 친하게 지내라고 권고하고, 배우자감을 평가할 때는 “잘 사는가”를 물어본 다음 “잘 생겼는가”를 묻는다고 한다.⁵³⁾

51) 귀순자 고정송의 증언.

52) 귀순자 안혁(1992.8.26 귀순)의 증언.

북한의 주민들이 노동조건이 나쁘기로 소문난 시베리아 벌목장에 돈을 벌기 위하여 몰려든다고 한다. 벌목노동자 선발은 매년 각 시, 군당에서 공장, 기업소에 폰드(모집정원)를 내려보내어 모집하는데 1년에 3천명 정도 선발되며, 1개군(현재 147개군) 단위에서 20명 정도씩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자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고 한다. 귀순자 김태범에 의하면 1989년 경에는 7~8:1, 1992년경에는 20:1이었다고 하나, 귀순자 장기홍과 박창환은 50~70:1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1984년 김일성이 東歐 訪問을 마치고 귀국길에 러시아 임업 대표부를 방문하여 벌목공에 대우를 잘 해주고 성분이 좋은 사람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이후 러시아 벌목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5년 김정일이 평양시 주민생활을 높이는 방안으로 在蘇 임업 노동에 평양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파견하라는 정책지시가 하달된 이후 평양시 주민들이 전체 벌목공의 30~40%를 차지한다고 한다.⁵⁵⁾

북한 주민들이 物件에 대한 높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小說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단편소설 「분수령」에서 만년필과 시계에 대한 깊은 所有慾을 소재로 다루

53)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54) 귀순자 김태범, 장기홍, 박창환의 증언.

55) 귀순자 최명학의 증언.

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한 주민들이 귀한 물건에 대한 높은 가치를 부여함을 읽을 수 있다. 자재공장의 판매부장이 자재 구입차 찾아온 고객에게 시계를 탐하다가 결국은 금촉 만년필을 하나 紀念品으로 받고는 결재를 해주었다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하여튼 난 규소강판을 받기전에는 이 공장에서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으니 그리 아쉬.〉

〈그건 마음대로 하소구려. 헌데 난 회의에 가야되겠는데… 미안하지만 지금 몇시나 됐습니까? 내 시계는 췌군요.〉

판매부장은 손목시계를 귀에 대보기도 하고 흔들어보기도 하더니 책상건너 장세진의 팔목을 넘겨다 보았다. 장세진이 세시라고 알려주니 목을 숙 뺏아들고 그의 시계를 보던 판매부장이 책상을 에돌아왔다. 그는 장세진이 귀찮아 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시계를 이리보고 저리보고 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판매부장은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만년필이 말썽을 부려 판자노리의 심줄이 퍼렇게 일어났다.

〈아 이거야 어디 해떡겠나.〉

잉크가 나오지 않는 만년필을 집어던지고 장세진에게 쓸게 없는가고 물었다. 장세진은 내키지 않았으나 속주머니에 깊숙이 간수했던 만년필을 꺼내주었다. 판매부장은 몇자 써보다가 번쩍거리는 금촉만년필을 시계처럼 이리저리 뜯어보았다.

〈허, 주인을 잘못 만났군.〉

판매부장은 장세진을 바라보며 뜻모르게 히죽 웃었다.

(별 싱거운 사람 다 보는군.)

장세진은 걸었던 팔소매를 내리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매부장과 마주앉아있어봐야 철판 한장 받아내기 어려울것 같았다.

(중략)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모처럼 먼길을 수고스럽게 오셨는데 빈 손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안됐군요.〉

(중략)

〈자재사업이 처음인 모양이군요.〉

낮선사람이 웃으며 동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보매 그는 다리 저는 세진이 측은하게 생각되었던 모양이다. (중략)

〈손님,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빈손으로는 절대로 돌아갈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세진은 체면도 가리지 않고 낮선 손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실토정했다.

〈방법이 노상 없는것도 아닙니다.〉

낮선사람은 히죽히죽 웃더니 누가 엇들을세라 장세진의 귀구멍에 더운 입김을 들썩우며 소곤거렸다.

〈만년필이야 또 장만하면 되지 않겠소. 판매부장의 입이 좀 컵네다. 아까와 말고 꺾 하시오.〉

(중략)

장세진은 해질녘이되자 이 낮선 강철도시의 첫 상담자였던 판매부장을 (다시) 찾아가 다짜고짜로 만년필을 그의 책상우에 팽개치듯 내던졌다.

〈많이 도와주어 고맙소. 만났던 기념으로 이 만년필이나 건사하시오.〉

판매부장은 만년필을 보자 툭 불거진 울대뼈가 꿈틀거리고 눈에 병꽃 번개가 일었다.

〈어서 건사하시우. 나야 큰 무역항과 평양사이에 사는 사람이고 또 부장동무가 말하듯이 이것도 주인을 잘못 만난것 같으니... 말하자면 이제야 이 만년필이 진짜 주인을 찾은셈이지요.〉

(중략)

판매부장은 못이기는척하고 자기의 골동품같은 만년필을 꺼내여 어수룩해보이는 인수원앞에 내놓았다. 그는 판에박은 듯한 호인다

운 웃음을 띄우며 장세진에게 담배를 권했다. 그리고는 별로 의의도 없는 사말사를 이것저것 늘어놓다가 자재배정표의 빈자리에 재빨리 도장을 찍었다.

마지막으로부터 세번째의 결재란은 이렇게 메꾸어졌다.⁵⁶⁾

단편소설 「아버지의 초상」은 북한사회에서 보다 나은 物質生活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 아들은 다문 하루라도 아버지를 잘 모시자는것이 평생소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가 땀을 철철 흘리는걸 보면서두 이 못난 아들은 구실을 못하다보니 외국에 제집 드나들듯하는 친구들처럼 시원한 레몬수나 오렌지수같은것을 가져다드리지 못하는게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전에 비하면 우리 생활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섰다는것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날이 높아가는 생활적 요구에 따라서자니 사과보다두 꿀에 더 구미가 동해지구 순수한 단물보다두 빠이나풀이나 야자수같은데 더 관심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⁵⁷⁾

같은 소설에서는 라이타라는 귀한 물건에 대해 높은 價値를 부여함을 알 수 있다.

그후 달포가 지난 어느날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미란은 다른

56) 림재성, 「분수령」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9), pp. 167~72.

57) 김동호, “아버지의 초상,” 「조선문학」 (1991.5), p. 32.

나라 상표가 붙은 새까만 라이타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척 누르면 불이 켜지는 라이타예요. 막 써두 이삼년은 끄떡없을 거예요.〉

〈고맙소.〉

나는 몇번 불을 켜보고 호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골동품 휘발유 라이타를 애용하고 있는 아버지한테 주면 무척 좋아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였다.⁵⁸⁾

단편소설 「이대로 더는 못살아」에서 집안의 잘 갖추어진 살림살이에 대한 호감에서 북한 주민들의 所有慾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평양을 떠나기전날 송영진의 집에서 환송회가 열렸다. 평양 광복거리의 몇해전에 완공된 고층아파트들이 대규모로 들어섰는데 그가 사는 아파트는 특별히 눈에 띄웠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높고 탑형식으로 된 다른 대부분의 아파트와는 달리 4~5층 정도의 높이에 립체적으로 아담하게 지어진 아파트였다. 아래층에 응접실, 부엌, 방 한개, 화장실이 달린 목욕탕이 있고 옷층에 방 네개가 있는 널찍한 살림집이었다. 응접실에는 대형랭장고, 텔레비존, 대형록음기가 놓여있고 동양화 한폭이 늘어져있는 방안은 무척 정갈해보였다. 우리 일행은 평양의 <호화주택에서 환송회를 받게 되어 무척 고맙다>고 통답을 했다.

송영진은 손님대접을 한다고 아래층 베란다에 싱싱하게 열려있는 오이와 풋고추를 몽땅 따다가 명태젓, 닭알젓, 송어구이 등이 푸짐하게 차려진 만찬상에 고추장과 함께 올려놓았다. (하략)⁵⁹⁾

58) 위의 글, p. 31.

59) 백은팔, “이대로 더는 못살아,” 「조선문학」 (1993.3), p. 70.

단편소설 「초불」에서 돈의 價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변화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텔레비존에서 추첨제저금추첨을 한다는것이였다.

어느결에 손녀애도 언제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했더니싫게 뽀르르 방안으로 달려들어가 저금통장을 찾아들고 나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만나보세요.〉

로인은 손주애들이 펼쳐보이는 여러장의 저금통장들을 바라보며 대견함을 금치 못해했다. 그 저금통장들이 생활이 유족해갈수록 살림살이를 더욱 간지게 꾸려가는 셋째며느리의 알뜰함을 말해주는 듯싶어서였다.

〈허허허... 저금통장이 많기도 하구나...〉 하고 로인은 며느리를 돌아보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녀석이 뭐가 못마땅해서인지 〈다섯장이 뭐 많나요?〉 하고 불부은 소리를 했다. 돈이 불어나자면 등수에 많이 들수 있게 저금통장이 더 있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자 손녀애까지 어리광을 부리며 맞장구를 쳤다.

〈할아버지, 오빠는 정말 재수없어요. 나두, 언니두 그리구 아버지, 어머니것두 모두 한두번씩 등수에 들어 돈이 불어났는데 오빠 것만 한번도 맞지 않았어요. 해해해...〉

〈그래-허어, 거 정말 안됐구나...〉

로인은 일부러스레 눈을 크게 떠보이면서도 마음은 별스럽게 불안해졌다. 애들의 눈빛에서 돈에 대한 탐욕과도 같은것을 느꼈기 때문이였다.

(아서라. 내 무슨 생각을...)

이윽고 텔레비존에서 당첨번호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애들은 물론 며느리도 온몸이 눈과 귀가 되어 번호를 맞춰보기에 여념이 없었다.⁶⁰⁾

60) 전세창, “초불,” 「조선문학」 (1993.3), p. 29.

장편소설 「분수령」에서는 생산실적에 근거한 인센티브제도인 임금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읽을 수 있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에게 돈의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탁한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보지 않아도 박명섭이라는게 알렸다.

〈제품을 깎은것만큼 돈을 준다니 물질적 자극을 강화하는 면에서는 좋을겁니다. 그런데 전번에 설명을 들어도 그대 오늘 또 자세히 들어도 〈임금표〉는 제품의 완성에는 관계없이 로임평가를 하는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고지만은 자신있는 목소리로 대답했다.⁶¹⁾

3. 小結

소련 및 동구의 경제영역에서 私的 自律化는 사회주의체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영역에서 인민들은 국가로 하여금 인민들의 경제행위에 적응하게 하고 인민들의 경제행위는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는 측면에서 국가와의 투쟁에서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경제적 사적 자율화의 과정은 체제불만을 약

61) 림재성, 「분수령」, p. 41.

화시키고 체제를 유지시킨다는 측면에서 順機能的인 측면도 있으나, 대체로 부패를 조장하고 극단적으로는 위기와 蜂起를 조장함으로써 체제에 위협적이다. 결과적으로 소련경제를 정체시키고 성장률을 저하시키며, 기술발전을 정체시키고, 재화와 서어비스의 질을 낙후하게 만들었다.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집단주의적 가치가 지배적인 가치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이제 集團主義的 충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슬로건과 思想教養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물질주의, 소유주의, 배금주의에 기초한 個人主義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경제영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된 의식을 곧 體制抵抗意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체제내에서의 경제적 實用主義 또는 個人主義를 추구하는 의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第Ⅲ章 社會領域에서 私的 自律化

사회는 개인, 원초집단(primary groups), 2차집단(secondary group), 국가의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은 사회의 최소단위이며, 원초집단은 가족, 친구, 연인, 이웃 등과 같이 특정한 목적없이 개인들이 전인격적으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로서 구성된다. 2차집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된 利益集團(organization)으로서 情緒的인 관계는 갖지 않는다. 국가는 강제력을 가지는 기구 또는 기관으로서 공적 부문의 최고 단위이다. 이 네 가지 수준의 사회적 구성단위 중에서 앞의 두 가지는 모두 사적 영역의 단위로서 국가로 표현되는 공적 영역에 대응되는 영역이지만 세번째의 2차집단은 공적 부문인 국가와 순수하게 사적 부문인 개인과 원초집단의 중간적인 성격이다.

그런데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세 가지 수준의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공적 영역화되었다. 공적 영역화된 사회가 어떻게 얼마만큼 다시 私的 自律化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章의 목적이다.

1. 개인적 수준: 集團主義에서 個人主義로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개인의 수준에서 관찰할 수 있는 私的 자율화의 구체적인 행위양식은 공적인 의무와 이익은 소홀히 하고 대신 사적 또는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것은 곧 집단주의적 가치가 개인주의적 가치로 전변된 것이다. 個人主義란 기본적으로 개인의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는 가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集團主義的 가치와 대조적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를 촉진시킨 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다른 사회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쉴라펜토크에 의하면, 불과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혁명의 전성기와 內戰期間 동안에도 평균적인 볼세비키는 사회적 위신과 권력 및 물질적 특전을 매우 좋아하였다는 점이다.⁶²⁾ 인간의 본질의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個人主義가 성장한 것은 국가가

62)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153~54.

개인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보상을 해주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점차 公的 목적을 위하여 근면하고 양심적으로 일하는 것이 별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오히려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공적 지위를 독직하거나 아니면 지하경제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국가를 위한 일은 게을리하고 사적이익 추구에 열중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결과적으로 私的 自律化를 심화시켰다.

셋째, 주민들의 개인주의는 부분적으로는 지배계층 및 관료들로부터 배운 것으로 볼 수 있다. 글라스노스트 시대에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을 때 소련인들의 관료들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소련인들은 관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는 무엇이든지 하는 완전히 腐敗한 個人主義者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⁶³⁾

나. 北韓의 경우

북한에서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구분하여 集團主義를 장려하고 개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인 화두이자 사회적 조직원리로 되어 있다. 김정일의 이름으로 발표

63) Ibid., p. 156.

된 한 글은 인생관을 크게 개인주의적 인생관과 집단주의적 인생관으로 나누고 個人主義的 인생관은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인생관이라면, 集團主義的 인생관은 자기의 운명을 집단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집단을 위한 투쟁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인생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⁴⁾

김일성이 지적한대로 북한에서 集團主義는 “로동계급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자들이 굳게 뭉쳐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회생활의 기초”로 제시되고 있다.⁶⁵⁾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개인의 안일과 향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고상한 革命情神으로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집단주의가 김일성이 직접 조직 영도했다는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발생했으며 그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결국 집단주의의 최고표현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忠實性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⁶⁾

64) 강민구,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근로자」 (1987.4), p. 54에서 재인용.

65)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465.

66)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083.

이처럼 중요한 집단주의로 인민들을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들 속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⁶⁷⁾ 북한에서 계속하고 있는 人間改造事業의 본질은 바로 개인주의를 억제하고 집단주의를 강화하는 사업일 것이다.

그러나 주민생활에서는 이러한 집단주의적 원칙은 원칙의 수준에 머물며 실제 상황에서는 개인주의가 만연한다고 한다. 한 귀순자의 증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집단주의를 더 강하게 부르짖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주의가 매우 심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經濟沈滯 때문이라고 한다. “내것만 있으면 산다, 내가 버틸적 거려 살아야 한다”는 개인주의가 더욱 팽배하다고 한다.⁶⁸⁾

북한 주민들이 공식적인 가치관인 집단주의에서 이탈하여 개인주의와 利己主義를 선호한다는 증거는 북한 소설의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편소설 「먼길」은 국가의 사업 중의 하나인 G-13이라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양성된 지질학자가 직무를 방기하고 도망간 양빈이라는 사람과 새로 후임으로 부임해온 최종렬이라는 두 사람간의 가치관을 대조시켜 묘사한 것이 소설의 줄거리이다. 이 소설을 북한에서 읽었다는 귀순자 안명진, 최명학, 윤웅 3인 모두 부정적으로 묘

6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 p. 466.

68)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사된 양빈이 북한의 평균적인 사람에 가깝다고 증언하였다. 이 소설에서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양빈이라는 사람의 부인의 발언에서 전형적인 個人主義的 意識을 읽을 수 있다.

〈너에게 죄다 말해주마. 우리는 새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였다. 우리에게 대한 비난을 피해서 지방 항구도시로 간다.

양빈동무는 그곳 기계공장의 평기사로 파묻혀버리고 난 그곳 항구의 화물문서나 번역하는 사무원이 되려고 한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뒤끝에 우리는 이런 합의에 이른거다. 우리로서는 그 편이 몸도 마음도 편안한 길이다. 인젠 과학이니 탐구니 실험실이니 하는것들은 듣거나 보기만 해도 몸이 오싹해진다. 그 세계엔 인간다운 생활이란 없고 초조, 불안, 공포, 지친 사람의 쪽잠이 있을뿐이다.〉⁶⁹⁾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가 요구하는 원칙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하여 새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같은 소설의 다른 부분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를 읽을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최중렬의 애인이 보낸 편지의 내용에서도 집단이 아닌 個人들만의 세계, 개인의 安逸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였다가 정확한 시간에 퇴근하여 자기 집으

69) 정창윤, 「먼길」 (평양: 문예출판사, 1983), pp. 51~52.

로 돌아오는 생활, 저녁이면 자기 집의 창문들에 문보를 내리우고 〈자기들만의 세계〉에 잠기는 그런 생활을 원하고있어요. 저는 청춘을 즐기고싶어요. 한껏 생을 즐기고 싶어요. 즐길수 있을때까지 즐기고싶어요.⁷⁰⁾

흥미로운 것은 아래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편지에 대한 최중열의 회답에서 위의 사실이 “적지 않는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며 따라서 북한 사회에 편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동무가 원하는 생활엔 그 어떤 범죄도 없다. 적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다. 나처럼 영원한 초행길 나그네가 되어 종착점 없는 길을 가는 것보다는 그 길이 훨씬 매혹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유감스러운 것은 동무의 권고를 받아들일 만한 아량이 나에겐 없는 것이다.⁷¹⁾

같은 소설에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금속공학전문가 양빈이라는 사람의 말에서도 집단을 위한 自己犧牲 보다는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겠다는 가치의식을 읽을 수 있다.

〈고맙소 최동무. 허지만 인젠 너무 늦었어. 난 변했단말이요. 과학도, 탐구도, 명예도, 리상도 더는 나를 자극하지 못하오. 그동안 많이 울고, 많이 생각한 후에 지금처럼 살기로 결심하였소. 나도, 내 처도 종래와는 다른 자기 생리, 자기 론리, 자기 생활관을 가졌단말이요. 우리의 그 새로운 생활관은 이렇소. 〈자기 희생이 무엇

70) 위의 책, p. 8.

71) 위의 책, p. 9.

때문에 필요한가? 남들이 즐거울 때 우리도 즐거워야 한다...》⁷²⁾

장편소설 「환희」는 어느 연합기업소 지배인의 성실한 복무태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前 支配人의 개인주의적 행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기는 전 지배인은 매일 점심식사후에 1시부터 2시 사이에 승용차를 타고 병원에 와서 초음파를 비롯한 물리치료를 받고 혈압을 잴으며 이틀에 한번씩은 무조건 한증까지 하고 가군했었다. 몇년을 두고 그 지배인의 생활에서는 이것이 완전무결한 드릴수 없는 일정표로 되고있었다. 병원에서도 여기에 습관되었고 공장도 이것에 적응되어 지배인의 그 어길수 없는 시간에 지배인이 참여해야 하는 그 어떤 회의나 모임도 조직하지 않았다.⁷³⁾

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이 건강에 별 이상도 없으면서 점심 식사 후 1시간 동안은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도 받고 사우나까지 하고 가는데 병원의 진료시간과 공장의 회의 시간도 지배인의 이 스케줄에 맞추고 있다는 내용이다. 집단주의 사회에서 한 지배인이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넘어서 個人의 安逸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중편소설 「우리의 벗」은 한 젊은 지질연구사가 야외작업

72) 위의 책, p. 164.

73) 김봉철, 「환희」 (평양: 문예출판사, 1992), p. 201.

에서 느낀 수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것이다.

내가 이제는 날씨도 추워졌는데 손님들 방에 불을 넣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처녀는 쌀쌀하게 대답하였다.

〈손님, 규정상 10월 하순부터 보이라를 돌리게 됐습니다. 어찌겠어요. 당분간 좀 극복하세요.〉

나는 처녀의 거만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웃으면서 사정을 하였다. (중략)

〈야, 그 손님 정말 다사스럽다. 우리 군에서는 사정이 다르단말예요. 지금 덕흥발전소가 말썬이 생겨서 발전소를 고칠 때까지 당분간은 방을 덤힐수 없어요.〉

나는 처녀의 짜증에 아연해진채 책상밑에서 열을 뿜고 있는 전기열풍기를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손님들에게는 발전소 사정으로 방을 덤힐수 없다고 하면서도 관리원 자신은 전기열풍기가 돌아가는 후끈한 방에 땀뻑하게 앉아 있다는 것이 놀랍고 혐오스러웠다.⁷⁴⁾

이 사례를 통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日常生活에서는 집단적 원칙과 개인의 이익은 괴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단편소설 「흘러온 산」은 북한에서 일견 집단적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도 결국은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는 功名心이 더 중요한 동기임을 지적한다.

문득 학민은 자기를 돌이켜보았다. 그러자 지나온 나날들이 모

74) 백보흠, 「우리의 벗」 (평양: 문예출판사, 1990), p. 20.

질게 돌이켜지며 나는 왜 그렇게 급급해했던가, 광산을 하루빨리 개발하고 석들을 캐내게 하자고? 물론 그런것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ㅎ>층서에서 얻어지게 될 학위학직에 대한 욕망이 더 끊지 않았던가.

생각이 여기에 멎자 학민은 움쭉 몸을 떨었다.

(공명, 그것이 결국 나라를 받든다는 구실밑에 자기를 먼저 내세우려 했구나. 그러니 연구소로 올라갈 일에만 급급해서 물집을 대수롭지 않게 볼 수밖에...⁷⁵⁾

장편소설 「생활의 언덕」은 북한 주민들의 안일을 추구하는 人生觀의 사례를 가정주부로 복귀하여 사는 한 女技士와 공장의 기술설계도면 관리원으로 일하는 옛 대학동창생과의 대화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꾸리고 남편들이 사회에 나가 활개치며 일하도록 뒤바라지나 잘하면 되지 뭐. 물론 우리도 기사야. 당의 혜택으로 공부한 사람들인것만큼 집에 앉아 놀수는 없지. 사람이란 체면차릴 줄도 눈치있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나없이 깨끗하고 조용한 직업을 가지고있지 않나. 시키는 일이나 군말없이 하고 결근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그뿐인가?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거든. 그만하면 대단하지. 무슨 일을 더 하겠다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맡아가지고 괜히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⁷⁶⁾

75) 최정담, “홀러온 산,” 「청년문학」 (1990.7), p. 20.

76) 김교섭, 「생활의 언덕」 (평양: 문예출판사, 1984).

이 귀절에 대하여 북한의 한 文學評論家는 아래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가정부인들의 의식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것이 대학을 졸업한 일부 가정부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이다. 어떤 여성들은 이보다 더 뒤떨어진 생활관을 가지고있다. 사회적으로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도 나라의 일은 껄렁껄렁하고 남편의 그늘 밑에서 안일하게 살아가려는 여성들의 이런 저속한 인생관이야 말로 그 자체가 자기를 자주적인 인간의 위치에서 세속적인 생활의 노예로 내리운다는것을 의미한다.⁷⁷⁾

단편소설 「첫직업」을 통해서 직업의 선택에서도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유익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녀동무! 동무는 정말 단순하구만. 주물공이 뭐 대단한 기술이라구.>

<네?... 그래서 동무는 사회에 진출하여 처음으로 택한 그 직업을 아무런 미련도 없이 버리는가요?...>

정녀의 말은 나의 가슴에 뜨겁게 울려왔다. 나는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정녀의 말이 옳았다. 상혁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서슴없이 버리는 것이었다.⁷⁸⁾

77) 장영, “현실주체의 장중편소설과 인간문제의 탐구,” 「문학작품집: 1987」, (평양: 문예출판사, 1989) p. 243.

단편소설 「삶의 자격」은 생활에서의 성공과 삶의 만족은 집단주의적 가치의 실현보다는 높은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여 自己利益을 추구하는 발판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언젠가 삼촌이 나에게 삶의 자격에 대해 설명하던것이 생각났다. 그때 삼촌은 나에게 생활에서의 성공, 삶의 만족은 어쨌든 자기 위치를 차지할 때만 담보되는것이라고 하였다.

너무도 판이한 대조에 나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결국 삼촌이 말하는 자격이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발판이고 디딤돌이라는 소리가 아닌가.⁷⁹⁾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 개인수준에서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살펴보았다. 개인이 개인주의를 선호한다면 개인의 집합인 1차집단, 2차집단,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社會集團 수준에서 私的 자율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78) 리승두, “첫직업,” 「청년문학」(1989.3), p. 21.

79)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1990.10), p. 35.

2. 一次集團: 가족, 연인, 친구관계의 활성화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식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현상의 하나는 고전적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억압되었던 國家組織 밖의 비공식 집단, 즉, 가족, 친구관계, 연인 등의 역할이 변화하는 것이다. 샘슨은 비공식채널과 사회적 연결이 모든 동구 사회주의 사회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⁸⁰⁾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국가에서 가족은 社會統制의 기구로서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오히려 가족은 가장 중요한 사적 영역의 기능을 회복한 것이다. 폴란드, 불가리아,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가치는 家族生活인 것으로 밝혀졌다.⁸¹⁾ 소련 社會學者 코오간의 1981년 조사에서도 소련사회에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가족생활인 것으로 밝혀졌다.⁸²⁾

80) Steven Sampson, "The Informal Sector in Eastern Europe," *Telos*, no. 66 (1985-86), pp. 64.

81) A. Inkeles, "Modernization and Family Patterns: a Test of Convergence Theory," In Hoover and J. Koumouldies, ed., *Conspectus of History* (1980), p. 49.

82)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 167.

소련에서의 가족은 스탈린 사망 이후부터는 국가에 봉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점차 국가에 대항하는 단위로서 성장하였으며 사적 자율화의 주도적 제도가 되었다. 가족은 지배이데올로기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政治局에서부터 일반 노동자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公的 생활에서는 박탈된 개인의 자유를 가족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족은 국가의 기관이 아니라 가혹한 현실인 국가로부터의 情緒的인 피난처인 것이다.

가족은 또한 공식경제에 병행하여 재화와 용역을 분배하는 거대한 非公式體制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족 성원들은 전적으로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물건을 암시장에서 구입하는데 있어서 서로를 지원한다. 스탈린 死後 가족 성원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화하지 않았다면 소련에서 지난 20여년간의 거대한 地下經濟의 성장은 없었을 것이다.⁸³⁾

친구집단이 소련사회에서 사적 자유화를 촉진시킨 또 하나의 영역이다. 소련체제는 원래 同志關係(comradeship)는 장려해도 친구관계(friendship)는 금지시켰다. 소련체제가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친구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전체주의 사회에서 지도부는 모든

83) Ibid., p. 164~65.

개인이 原子化되어야 국가의 통제가 용이하다고 본다. 친구 집단은 국가의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를 방해한다. 더욱이 친구집단은 흔히 지하조직 형성이나 反政府 활동의 기초가 된다.⁸⁴⁾ 소련사회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적 기관이 바로 친구집단이다.

소련체제가 유연해지면서 친구관계는 점차 활성화되었다. 친구관계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의 경제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인적인 가치로 되었다. 친구집단은 공식매체로부터 얻을 수 없는 정보를 획득하는 중요한 원천이다. 한 사회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3분의 1이 流蜚通信을 외부세계 및 국내정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⁸⁵⁾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충분히 신뢰하는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직장구하기, 자녀들 진학 및 취업, 입원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일상생활에서 연줄의 구실을 하여 공적인 권위를 사적인 친구관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측면에서 公的 영역의 私的 自律化이다.⁸⁶⁾

친구집단과 유사한 집단으로서 戀人關係가 있다. 스탈린

84) Ibid., pp. 172.

85) E. Mikiewicz, *Media and the Russian Public* (New York: Praeger, 1981).

86)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 174.

시대에도 사랑은 엄혹한 정치적 현실에서 소련인들의 정서적인 도피처가 되었지만 국가와 테러앞에서는 사랑의 관계는 연약하여 배반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정치적 억압과 국가의 개입이 약해지면서 사랑의 역할은 크게 성장하였다. 사랑의 관계는 친구관계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소련사회에서 공적 세계를 사적 자율화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연인들은 서로의 취업, 승진, 학위논문 쓰기, 희소한 물건의 구입, 좋은 병원에 접근하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서로 도와줌으로써 官僚的 制限을 극복하는 機制로 활용하였다.⁸⁷⁾ 연인간의 개인적 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은 공적 세계의 집단주의적 원칙이 약해져서 私적인 영역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나. 北韓의 경우

(1) 家族主義의 발달

소련 및 동구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家族主義가 발달했다. 북한은 儒敎的 전통의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주의가 더 발달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1차집단의 사적 자율화를

87) Ibid., p. 178.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가족이다. 북한에서 사상과 성분이라는 집단적 이데올로기는 결국은 가족간의 연줄을 강화시켜주는 이데올로기로 활용된다. 간부의 자식이면 모두 사상과 성분이 좋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성분의 중시와 가족주의는 지배계급의 이익과 그 가족 내의 이익이 연결되는 메카니즘으로 되어 있다.

북한사회에서 가족주의의 중요성이 북한 소설에서 잘 드러나 있다. 단편소설 「기다리는 어머니」는 血肉의 情만은 무엇으로도 가를 수 없다는 사실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정을 잘 드러내어 준다. 또한 어머니에 대한 아들의 마음은 항상 不孝子息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이 북한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춘길이가 왔습니다. 이제야 어머니를 찾아온 불효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어머니는 나의 두손을 움켜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중략)

〈됐다. 살아있는 너를 보았으니 그것이면 된다. 용타, 그 험한 전쟁판에서 두 죽지 앓구 살아남아서 아버지처럼 큰 고기배의 선장을 한다니 이젠 죽어도 눈을 감겠다. 아이들이나 오겠다면 한번씩 보내렴.〉

어머니는 막내이의 손을 끌어다잡으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

〈누나랑 같이 오군해라. 사탕, 과자 사먹을 돈일랑은 내 주군하마. 이젠 그런 재미나 보며 살자꾸나.〉

그리고는 어서 들어가 점심이나 해먹자고 하였다.

어머니는 허리를 구부정하고 앞서 걸었다.

그제서야 나는 우리한테 어머니를 돌려세울 힘이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정!- 오직 무엇으로도 가를수 없는 혈육의 정만이 그를 불러세울수 있는데 우리에게겐 그것이 없다.⁸⁸⁾

장편소설 「먼길」도 북한에서 가족성원간의 사랑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어 주고 있다.

어머니는 저의 기쁨입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그 누가 저에게 건늬길에서 자동차를 주의하라고 타일러주겠습니까? 어머니가 계심으로 하여 저의 가슴은 언제나 맑고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로 차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습니다.⁸⁹⁾

밑줄 친 부분이 시사하는 대로 북한에서 한 개인에게는 어머니가 가장 좋다는 것이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주체사상, 집단주의 그 어느 것이 어머니보다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편소설 「은인들」은 가족들이 같이 만나는 날이 名節같이 기쁜날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家族主義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준다.

임씨는 합숙정문을 나셨다. 오늘밤 가족모임을 가지겠다고 해서

88) 로정범, “기다리는 어머니,” 「조선문학」 (1993.10), p. 42.

89) 정창윤, 「먼길」, p. 12.

합숙에서 특별히 조직한 좋은 영화가 있다는것도 보지 않고 퇴근 하는 길이었다. 이런 날이면 며느리도 놀러자고 출근할것을 예견 하여 아침에 동탁아소에 맡기던 철이도 데리고 출근했다.

가족모임이 있는 날이면 참으로 명절같았다. 일 잘하고 인사성 밝고 노래도 잘 불러 온 가족이 못사람들에게서 쉼사를 받게 하여 늘 모범으로 칭찬만 받던 명실에게 이날은 특히 기쁜날이었다.⁹⁰⁾

같은 소설은 다른 부분에서도 단란한 家庭의 幸福이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임을 알게 하여 준다.

눈우에 터벅터벅 발자국을 찍으며 합숙으로 한참 걷던 윤수는 무심결에 고개를 들었다. 불빛이 환한 아파트창가에 눈길이었다. 창문가들에서는 단란한 가정의 행복한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며 외로운 생각이 들었다.⁹¹⁾

단편소설 「인간의 수업」은 가족주의와 집단주의적 원칙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 소설에서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集團主義는 항상 가족주의에 의하여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家族主義가 집단주의를 압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90) 최봉무, 「은인들」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90), p. 65.

91) 위의 책, p. 116.

〈당신은 랭정해요. 그렇게 해야만 제자식을 바르게 키울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원칙적일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처사로서는 너무도 몰인정해요. 그래 허다못해 정택이를 집에서 다닐수 있는 귀성염전에라도 내보내면 큰일이 나나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 책임일꾼들부터 제자식들을 가장 멀고도 조건이 불리한 염전에 보냅시다, 나도 우리 맏아들을 남동염전에 제염공으로 보내겠소라고 했지만 기술부국장네도 철남이를 거기엔 안보내겠대요. 당신이야 책임일꾼으로서의 자기체면이 있는데 정택이를 다른 데루 빼돌리겠나요? 자식보다두 그게 몇배루 더 귀중할텐데요.〉

안해는 옷방에서 정택이가 부모들이 주고받는 말을 귀담아 들을수 있다는것조차 념두에 두지않았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면 더는 아들을 붙잡아둘수 없다고 생각한듯 결사적으로 나섰다.⁹²⁾

중편소설 「해빛」은 個人的 安逸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실시되는 社會勞動에서 핑계를 대며 빠지기 하는 경향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식료기사인 어머니는 늘 딸을 귀공주처럼 차려 내세웠고 남들보다 더 특별히 곱게 키웠다.

많지 않은 자식에 저것을 무엇때문에 일을 시키겠는가고, 학교에서 어떤 사회로동을 나갈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가 담임선생을 뺨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아이가 몸이 약하다느니, 어쩔 앓는다느니, 핑계를 대며 기어코 빠지도록 했다. 졸업반에 가서는 학교에서 변수향을 사범대학에 보내려 하자 〈교원은 힘들어서 죽어도 못한다〉며 또 부부는 〈막후공작〉을 맹렬하게 벌렸었다. 그리하여 끝내 의학전문학교로 돌려냈던 것이다.⁹³⁾

92) 리화, “인간의 수업,” 「조선문학」 (1989.7), p. 41.

이하의 여러 사례들은 가족간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시사하여 준다. 중편소설 「분수령」은 어머니와 딸 사이의 깊은 사랑과 相互依存性을 잘 느낄 수 있다. 자식은 어머니가 말년에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라는 표현이 남한 사람의 情緒와 별 차이가 없다.

〈난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래, 좋지요?〉

〈원, 애두...〉

인정이 해픈 현씨는 그 말 한마디에 벌써 가슴이 우들우들 떨린다. 자기의 젖으로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그에게 있어서 옥경은 희망의 꽃이였고 말년을 의탁할수 있는 마음의 기둥이기도 했다. 희망과 기쁨, 웃음을 실어다주던 그가 어미품을 떠나 등지를 털고 멀리 날아가는 새처럼 제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더없이 허전해지는 현씨였다. 그는 가슴을 찌르는듯한 서글픈 애수를 물리치려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리며 기름기가 없는 뻣뻣한 손으로 딸의 볼을 대구 쓸어만지었다. 옥경은 그 살뜰한 애무가 자기의 심장속으로 전류처럼 찌르르 줄달음치는것을 느끼며 현씨의 손을 꼭 쥐었다.⁹⁴⁾

단편소설 「갈숲의 저녁노을」도 어머니가 자식에게서 느끼는 깊은 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북한에서 어머니들이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는 이러한 깊은 情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 박찬은, 「해빛」 (평양: 문예출판사, 1985), p. 114.

94) 림재성, 「분수령」, p. 77.

<어데 가셨됐어요?>

<마안포전이랑 좀 돌아다녔지.>

<그런걸... 어서 집에 가보세요. 영희 오빠가 왔어요.>

<그래?!>

피로가 실려있던 조진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졌다. 그동안 홀로 생각하며 잠못들던 아들이었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환희가 온몸에 잦아들면서 끝없이 애뜻한 정을 자아냈다.⁹⁵⁾

단편소설 「아버지의 초상」은 북한사회에서 자식의 아버지
에 대한 깊은 정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며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이 한 인간의 平生所願일 만큼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무감과 애정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선
행하며 중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이 아들은 다문 하루라도 아버지를 잘 모시자는것이 평생소원
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아버지가 땀을 철철 흘리는걸 보면서두
이 못난 아들은 구실을 못하다보니 외국에 제집 드나들 듯하는 친
구들처럼 시원한 레몬수나 오렌지수 같은 것을 가져다드리지 못하
는게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전에 비하면 우리 생활이 상당
한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날
이 높아가는 생활적 요구에 따라서자니 사과보다두 귤에 더 구미
가 동해지구 순수한 단물보다두 빠이나풀이나 야자수 같은데 더
관심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⁹⁶⁾

95) 림병순, “갈숲의 저녁노을,” 「조선문학」 (1991.2), p. 56.

96) 김동호, “아버지의 초상,” p. 32.

단편소설 「보금자리」도 父母로서의 한 개인의 가장 소중한 價値가 무엇인지를 잘 시사하여 준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대학공부를 해야 할 막내이는 어떻게 하며 낮설은 새고장에 가서 령감이 하늘에 뜨고나면 늙은게 혼자 땡그 탕게 앉아서 무슨 재미로 살아간단 말인가. (중략)

다른것은 다 젓혀놓는다고 해도 막내이의 일은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다.

막내이만은 슬하에 끼고있으면서 마음껏 공부도 시키며 락을 보고싶은것이 봉녀의 심정이였다. 네 아들은 끝끝한 비행사가 되였으니 더 바랄게 없었고 막내만 공부시켜 한살림 잡아주고나면 그 까짓 이사를 백번 한대도 아쉬울것이 없을상싶었다.⁹⁷⁾

한 인간의 소원은 결국 자식들을 대학공부까지 시켜 사회적으로 좋은 직장을 잡아서 한 살림잡아주는 것이다. 자본주의 우리 사회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個人主義的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같은 내용을 단편소설 「높은 산마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녀는 자나깨나 아들을 번듯하게 키워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싶었다. 그 아들이 남들의 선망과 칭찬 속에서 일하기만을 바랐다. (중략)

치마폭에 감싸서 애지중지 길러낸 아들 하나를 담보도 없는 운전수를 시켜놓고 얼마나 많은 낮과 밤을 근심과 불안 속에서 보내

97) 박춘섭, “보금자리,” 「조선문학」 (1992.7), p. 26.

면서 얼마나 많은 꿈을 꾸었는지 몰랐다.

언제나 가슴이 한증만해서 이제나저제나 근심속에 아들을 부르며 그렇게 보낸 성녀였다. 아들이 실수할가봐 이렇게 저렇게 마음조이며 살아온 그였다.⁹⁸⁾

(2) 戀人關係 및 친구관계의 활성화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관계 및 친구관계에서도 집단주의적 원칙 보다는 사랑의 감정, 個人의 利益을 중시하는 私的 자율화가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장편소설 「환희」의 한 구절은 북한 젊은이들에게 사랑이 얼마나 至高한 가치인지를 추측하게 해준다.

〈내 보기엔 근식동무가 좋은 남자더라. 유치하지 않고 진실하고 학구열이 강하고... 이런 장점을 다 갖추고있는 남자가 혼한줄 아니? 진실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어. 그건 죄되는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에게두 그렇게 말해. 리해하실거야. 오늘저녁 근식동무를 만나겠지. 너의 진심을 말해. 난 아직 어떤 남자를 사랑해보지는 못했지만 사랑을 욕되게 하고싶지는 않아. 그처럼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무도 희롱할수 없는게 사랑이야. 그렇지 않니 수련아...〉⁹⁹⁾

絶對性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은 신성하고 아

98) 신락선, “높은 산마루,” 「청년문학」 (1990.9), p. 40.

99) 김봉철, 「환희」, p. 36.

롭다운 것이며 아무도 희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사랑은 북한의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가장 가치로운 것이다. 이것을 이데올로기와 社會主義가 능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단편소설 「강변의 버드나무」도 사랑의 감정이 북한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밑줄친 구절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說明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 만나자고 하였어요?〉

희철은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말을 어떻게 할수 있으랴. 〈동문 정말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그 물음이 딱 목구멍에 달라붙어 끝내 떨어지지 않는다. 처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더듬어보았다. 그러더니 그만 부끄러워진듯 빨개진 얼굴을 청년의 한쪽 어깨우에 묻었다. 순간 희철은 온몸의 피가 심장속으로 콧 물켜드는데 가슴이 뻐근해지고 눈뿌리가 화끈거렸다. 처녀의 전에없는 그 행동은 변함없는 사랑의 표시인것이다. 그는 어느새 벌써 희철의 마음을 알아차렸던것이다. 처녀는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열정을 다 기울이며 온몸으로 말하고있는듯하다. 사랑한다고 뜨겁게 뜨겁게 사랑한다고 불안의 얼음덩이는 순간에 녹아버리고 감동의 소용돌이가 머리를 현훈시켰다. 그는 저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그러쥐었다.

〈고맙소, 류경이, 내 영원히 동무만을 사랑할테요.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이 두손으로 동물 등등 떠받들고 다니겠어.〉

처녀는 그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설레이는 그의 마음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듯 꼭잡은 두손을 통하여 희철의 온몸에도 불줄기처럼 흐르고 있었다.¹⁰⁰⁾

아래의 인용구에서 보는 대로 북한에서 사랑의 감정은 이미 이성, 즉 集團主義的 원칙의 支配를 초월하는 가치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옥심은 자신이 성호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고있으며 그가 학습에서 눈에 띄게 성장이 보이는것을 내심 기뻐하게 되는 그것이 단순한 우정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야 어렵듯이 감각하게 되었다. 옥심은 자기의 이 신비스런 감정의 변화를 두고 깜짝 놀라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경원하지도 않았다. 다른것은 리성이 감정을 억제할수 있어도 사랑에 대한 감정은 리성의 지배를 초월하는것이다. 옥심은 그 감정의 승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불 심산인듯 종전처럼 성호를 대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약을 올리고 화를 돌구어주군했었다.¹⁰⁰

단편소설 「더 깊은 곳으로」는 개인적 사랑과 집단주의적 원칙의 葛藤에서 결국은 사랑의 가치가 選好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향화의 아버지는 나의 친구야. 이 갱의 숨은 력사와 숨은 흠집을 까밝혀 그의 처지를 난처하게 할 필요야 없지 않나. 그 사람의 잘못이자 내 잘못이지.〉

로성은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수 없었던 말이였으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딱히 그른 말도 아닌것 같았다. 그 모든 리면에는 향

100)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조선문학」 (1991.7), p. 54.

101) 김봉철, 「환희」, p. 251.

화라는 처녀가 있다. 사람들은 이따금 원칙만으로는 살아갈수 없다고 한다. 사랑과 원칙, 그 무엇을 양보해야 한단말인가. (중략)

향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로성의 어깨를 건드렸다.

〈아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부드러운 그 목소리가 로성의 생각을 깨뜨렸다. (중략)

〈향화, 난 래일 아버지의 지난날 잘못을 들춰내지 않으면 안되게 됐소. 가혹한 사람이라고 욕해주오.〉

〈내에?!〉 (중략)

〈심부를 개척 못해서 오늘은 우리 갱이 폐갱을 해야 하는가 마는가에 이르렀소.〉

〈그것이 다 우리 아버지의 책임이란 말예요?〉

〈...〉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치켜든 속눈썹이 바르르 떨렸다.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하며 입술을 실룩거리던 로성이 한숨을 길게 내불었다. (중략)

〈우리 아버지를 꼭 까밝혀야 하겠어요?〉

〈글쎄...〉 (중략)

순간 로성의 마음은 향화에게로 기울어졌다.

〈향화가 정 소원한다면...〉

로성은 말을 갑잘랐다. 향화의 그 깊고 차가운 호수와 같은 눈동자가 굳어지며 뚫어질듯 바라본다.

〈정 소원한다면 어떤다는거예요?〉

향화가 참지 못하고 한걸음 다가섰다.

〈향화, 래일 아버지에 대한 말을 하지 않겠소. 하지만 심부개척은 무조건 해야 하오.〉 (중략)

〈로성동무, 고마와요.〉

〈허참, 내가 어째서 향화앞에서 꿈쩍 못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것을 사랑이라고 하더군요.〉

로성의 항상 굳게 다물려져있는 두터울사한 입귀에는 인정어린

미소가 흐르고있었다.

향화가 생기를 띠고 로성의 손을 잡았다.¹⁰²⁾

장편소설 「분수령」의 한 구절은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다. 사랑은 가정과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의 가혹한 政治的 현실에서 도피하여 情緒的 幸福을 구할 수 있는 가치로서 이 세상 끝까지라도 가서 추구하고자 하는 至高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유현수의 목소리는 전혀 그의 목소리같지 않았다.

허옥경의 눈은 빛났다. 그 빛나는 눈은 이렇게 말하고있는듯 했다.

<저도 현수동무를 아무곳에도 보내지 않겠어요. ...아니예요, 동무가 가는곳이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함께 따라가겠어요. 믿어주세요.>

<그렇소. 우리는 영원히 함께 있게 될거요.>

유현수도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옥경은 말없이 온화하고 기쁨에 찬 시선으로 다정스레 쳐다보았다. 그 빛나는 눈을 취한듯이 바라보는 현수에게는 온갖 마음속 번뇌가 한순간에 물러나고 아무런 원망도 소원도 없이 행복한 이 순간만이 존재해있을뿐이었다.¹⁰³⁾

102) 송영택, “더 깊은곳으로,” 「조선문학」 (1993.5), pp. 38~41.

103) 립재성, 「분수령」, p. 72.

(3) 非公式集團의 연줄을 활용한 個人主義 관철의 경향

가족 친척, 연인관계, 친구관계의 연줄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이익을 충족시키는 사례, 즉 官僚的 원칙을 私的 자율화 하는 사례는 북한 소설에서 매우 많이 발견된다.

단편소설 「아버지의 초상」은 연인의 大學進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연인을 탄광에서 移職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그 이듬해 봄 어느날 나는 그와 함께 록음이 우거진 바다가 수림속을 즐겁게 거닐었다. 그때로부터 우리들의 가슴에는 사랑이 움터가기 시작했다. 나는 어느 하루도 미란에 대해 잊은적 없었고 그와 함께라면 별세계에라도 날아가고싶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금년에도 대학추천을 받지 못했나요?〉

어딘가 시답지 않아하는 미란의 물음이었다.

너무도 뜻밖의 물음이었어서 나는 좀 당황했으나 조금도 그런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소.〉

〈해운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가 되겠다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 물음에는 대답할 말이 막혀있다. 아버지가 나서주면 추천도 쉽게 받을수 있을거고 대학에 입학하는것도 문제없으리라 생각되었지만 그 말만은 차마 꺼낼수가 없었다.

〈뜻대로 안되누만...〉

〈그럼 탄광에서 나와야지요 뭐. 거기서만 동의하면 시내에다 대학에 인차 갈수 있는 자리를 탐문해보겠어요. 탄광에서 떼내오는

문제는 제가 아버지한테 들이대겠어요.)¹⁰⁴⁾

같은 소설에서 주인공이 자기 아버지의 친구이자 애인의 아버지인 노동과장을 만나 자기를 大學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請託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준다.

미란은 내 가슴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의 옛 전우인 총국장이 탄광에 내려와있다는것을 안 나는 그의 방조를 받자는 생각도 해보았고 로동과장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막역한 친구들이어서 지난날 나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돌려왔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더더욱 로동과장은 딸의 장래를 봐서라도 아버지를 설복시킬 수 있을것이였다. 그런만큼 로동과장부터 만나야겠다고 생각되였다.¹⁰⁵⁾

단편소설 「강변의 버드나무」는 형의 도움을 받아 炭工에서 移職하여 大學生이 된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깊은 밤 함숙호실창가에서 멀리 버럭산우에 반짝이는 외등을 볼 때면 인민대학습당의 조용한 전자계산기강의실에 앉아있는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여섯해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희철은 더는 견디어내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탄광에서 이만큼 일했으면 죽하다. 난 이제는 나의 리상을 실현

104) 김동호, “아버지의 초상,” pp. 31~32.

105) 위의 글, p. 34.

해야겠다!)

그날부터 희철은 연합기업소 노동과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석달만에 채취공업위원회에 있는 형님의 도움밑에 희망이 성취되었다.¹⁰⁶⁾

단편소설 「삶의 자격」에는 대학시험에 떨어진 조카를 막역한 친구인 大學의 간부지도원의 힘을 입어 入學시키겠다는 구절이 나온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군경영 위원회에서 일하는 삼촌이 해결해준다고 한다. 북한에서 官僚主義의 벽을 뚫기 위하여 人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례이다.

학교를 졸업한 나는 대학에 입학하려 했으나 그만 시험에 떨어지고말았다.

락심천만하여 돌아온 나의 폭 처진 어깨를 툭툭치며 삼촌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사내녀석이 고좁한걸 가지구 주눅이 들다니... 걱정말구 학교갈 준비나 해라.〉

〈어떻게요?〉

중병을 앓는 사람이 어떤 처방에든 귀가 솔깃해지듯 난 삼촌에게 바싹 다가앉았다.

삼촌은 한눈을 깜빡해보였다.

〈그 대학의 간부지도원이 나와 막역한 사이란다. 좀 힘들긴 해두 해결될게다.〉

〈정말이에요? 히야!〉

106)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조선문학」 (1991.7), p. 55.

마치 한자한자 부르는 기다란 추첨번호를 숨죽이고 맞추어보며 재발 마지막수자까지 맞았으면하는 막연한 기대가 현실로 됐을 때의 기쁨이랄까. 막혔던 숨이 후- 하고 나가면서 가슴속에 무겁게 떠돌던 조바심과 불안의 연기를 말끔히 몰아내간듯 마음은 날듯이 가벼워졌다.

그저 삼촌이 제일이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 나서군 하는 삼촌이 얼마나 고맙던지...¹⁰⁷⁾

단편소설 「내 고향의 잣나무」에서는 친구간에 아들을 大學에 입학시켜주는 것과 체육관 짓는데 소요될 목재를 조달해주는 것을 交換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다.

한번은 체육관을 짓는 목재때문에 올라온 군교육과장을 집에 데리고와 저녁상을 차려놓은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목재는 내가 책임질테니 과장동문 우리 애를 맡아 대학엘 보내주시우.〉

군 교육과장선생은 예비시험날자까지 알려주며 내려보내라고 하였다.

나는 대학생이 다 된것처럼 기뻐다.¹⁰⁸⁾

같은 소설에서 入試過程에서 아는 사람을 통하여 시험 채점의 비밀까지도 누설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내가 시험치러 군으로 가는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군에 가자마자 군 교육과장한테 찾아가거라.〉

107)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 (1990.10), p. 28.

108) 정해경, “내 고향의 잣나무: 한 인민군전사의 수기,” 「조선문학」 (1993.5), p. 31.

아버지는 이외에도 시험치기전에 찾아가 시험번호를 알려주라고 두명의 이름을 대주었다. (중략)

나는 군에 도착한 즉시로 군 교육과장선생을 찾아갔다.

그는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저녁에는 려관에까지 찾아와 나를 집으로 청해다 저녁식사까지 시켰다.

그러면서 시험은 두차례에 걸쳐 치는데 두번 시험성적을 평균내여 점수가 높은 순서로 51명을 뽑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대준 사람들한테도 찾아가 내가 시험치러 왔다는것을 알려주었다.¹⁰⁹⁾

단편소설 「밝은 저녁」은 아버지의 친구에게 편지를 하여 자기를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으로 昇進시켜달라고 請託하는 장면을 싣고 있다.

간부과장동지에게!

안녕하십니까? 검암리에 사는 오유삼의 외아들 오진백이가 처음 이자 마지막이 될 부탁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과장동지가 29년전 이고장을 떠나실 때 열세살인 저에게 어른이 되거든 도움이 필요한 경우 편지를 하라고 하셨기에 주저없이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우에서 내려온 사람과 담화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저는 우리 농장의 결원인 기사장으로 승급시키려는것이 아닌가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과분한것이고 바라던바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것은 군경영위원회 지도원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동

109) 위의 글, p. 33.

지가 군에다 전화 한통 해주면 될겁니다. 군당책임비서동지에게 찾아갈수도 있지만 책임비서동지는 언제나 옛선배인 아버지편이랍니다.

(중략)

제가 여기에 눌러있어서는 곧 은백인 아버지를 편히 쉬울수 없다는것을 저는 명백히 알고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저는 뒤늦게나마 아버지를 성의껏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차려진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옛지기이며 이고장의 리당부위원장이었던 간부과장동지!

저는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검암리에서 한생을 살고있는 오유삼의 외아들 오진백이 드립니다.¹¹⁰⁾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는 車票를 사는 일도 아내의 친구인 역무원을 찾아가 남보다 쉽게 좋은 자리의 표를 산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이튿날 아침 나는 역으로 나갔다. 나가는 길로 안해가 자기 동무라고 하던 안내원을 찾았다.

아침식사 할 때 안해가 밤새 생각해낸듯 그에 대한 말을 꺼냈던 것이다.

〈차표사는데 사람이 많을수 있는데, 안내실에 찾아가세요. 거기 우리 동무가 있어요. 차표를 떼줄거예요.〉

〈뭐라고 말한다?〉

〈여기에 다 썼어요. 여기 이름도 썼으니 찾아가서 주기만 하면

110) 박호섭, “밝은 저녁,” 「조선문학」 (1993.11), pp. 38~39.

돼요.>

하고 안해는 글썽지를 내놓았다. (중략)

역에는 아닌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다. 대합실의 그 많은 의자들도 모자라 앉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차표때는데는 더 복잡할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안내실부터 찾아갔던것이다...

안내원은 친절해보이는 직업적인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글썽지를 보고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만사가 그야말로 태평해졌다.¹¹¹⁾

3. 二次集團 및 국가: 뇌물, 절취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2차집단 및 국가 영역에서 사적 자유회의 유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공적 지위를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瀆職行爲나, 국가의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전용 또는 절취하는 행위이다. 소련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통제는 거의 절망적인 상태였다고 한다. 지도층뿐만 아니라 인민대중까지도 국가 자원을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있어서 온갖 종류의 잔꾀를 다 활용하였다고 한다.¹¹²⁾

111) 한웅빈, “〈행운〉에 대한 기대,” 「조선문학」 (1993.10), pp. 63~64.

운전수들이 공용차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운송업을 하는 경우와 농민들이 個人所有의 소를 집단농장에 섞어서 放牧하여 사료비를 절약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례이다.

공적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이 賂物이다. 뇌물은 소련사회에서 모든 계층에서 만연하였다. 뇌물수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업소 또는 관공서 등의 직장 내에서 상하위직간의 뇌물수수이다.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逸脫行爲에 대한 관용을 받기 위하여,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위하여 뇌물을 수수한다. 둘째 유형은 직장 밖의 黨 상관에게 바치는 뇌물이다.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하여, 주택을 바꾸기 위하여,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당원이 되기 위하여, 旅行許可를 얻기 위하여 등 수많은 이유로 하여 소련인들은 당 관료에게 뇌물을 주어야 하는 구조 속에 있다. 세번째 유형은 피지배자들 사이의 뇌물수수이다. 서어비스업 종사자와 그 소비자들 간의 뇌물수수이다. 상점, 기차역, 수선가게, 미장원, 병원, 극장 등 온갖 종류의 서어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뇌물을 받고 個人利益을 추구하는 것이다.¹¹³⁾

112)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204~05.

113) *Ibid.*, pp. 213~14.

공적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일탈행위는 職場資産의 절취이다. 소련에서도 國家財産을 절취(pilfering)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행하는 매우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사회현상이었다고 한다. 한 방직공장에 대한 한 사례연구는 남녀노소, 교육수준 구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절취행위에 가담한다고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86년 당시 27차 당대회에서 보고한 대로 소련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갔다고 한다. 절취행위는 생산현장과 분배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 1984년 9월 12일 *Literaturnaia Gazeta*의 보도에 의하면 불가강가의 자동차 공장인 WAZ에서 160만개의 자동차가 생산되었는데 110만개가 절취당했다고 한다. 1986년의 *Pravda*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 소도시의 모든 주민들은 國營商店에서 팔지도 않은 상품을 절취를 통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¹¹⁴⁾

114) *Ibid.*, pp. 215~16.

나. 北韓의 경우

(1) 뇌물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로부터 개인주의로 가치지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의 하나는 공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뇌물수수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¹¹⁵⁾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뇌물은 사회전체에 만연하는 逸脫行爲로 되었다. 고위관리에서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뇌물수수는 일상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歸順者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1970년대 후반에는 뇌물이란 구경도 하기 힘들었는데 1980년대 후반에는 뇌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참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10년전(여기서는 1977년경을 의미함) 하고는 영 판판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지요. 대신 뇌물만 주면 또 안되는 일도 없구요.¹¹⁶⁾

115) 공직자가 뇌물을 받는 행위는 공직의 권한을 활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챙기는 행위이다. 대체로 권력이 집중된 사회일수록 권력자에 대한 뇌물이 더 성행하는 법이다.

116)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그리운 어머니」 (서울: 향실, 1993), p. 32.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가족은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간혀있다가 친척의 뇌물로 풀려났으며, 처음에는 농장에 배치받았다가 뇌물을 제공한 후 다시 우마차 사업소로 배치받았다고 한다.¹¹⁷⁾

出身成分이 대학 입학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 최근에는 뇌물을 주고 대학에 입학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고 한다. 軍의 한 단위부대에 정식으로 내려오는 폰드는 9명인데 지명되어 내려오는 사람(뇌물을 통하여 이미 입학이 결정된 경우)은 22명에 달한다고 한다. 대학입시 철이면 대학의 募集課 직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들고 청탁을 오기 때문에 자기집에서 자지 못하고 피해야 하는 정도라고 한다.¹¹⁸⁾

러시아 별목공 선발과정에서도 어김없이 뇌물이 수수된다고 한다. 별목공 선발은 각 공장 기업소에서 金父子에게 충실하며 사업과 당조직 생활, 사로청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이며 맡겨진 생산과제 수행에 모범을 보인 당원들과 사로청원들을 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 가운데 면접시험을 치를 때는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은근히 요구하는 것이 예사이며 뇌물을 제공해야 합격하기가 쉽다고 한다.¹¹⁹⁾

117) 위의 책, p. 46.

118) 귀순자 박수현, 윤웅의 증언.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조선족 사회과학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1988년 북한의 親戚을 訪問할 때 평양에서 함흥행 기차를 탔는데, 역무원들이 친척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보고는 뇌물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선물보따리에서 물건을 하나씩 꺼내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기차에 짐을 실을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북한은 최근 경제난이 長期化되면서 “뇌물은 인간의 도리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뇌물수수행위가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주민들 사이에서는 “「맨입반대 투쟁월간」은 1년내내 계속된다,” “모두가 자기방면에서 쪼아먹으며 산다”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 맨입반대 투쟁월간의 경우, 경제난이 장기화되어 일상생활의 대화 주제들이 식량난 관련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면서 현재 북한내 최대의 유행어로 되어있다고 한다. 이는 國家公務로 정식 절차를 밟아하는 일이라도 뇌물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는 현실을 빚댄 말로서 “위생월간(9.1~10.31),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 등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맨입반대 투쟁월간이 더욱 중요하다, 맨입반대 투쟁월간은 다른 투쟁월간과 달리 일년 내내 계속되는 사업이다”는 식으로 日常對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¹²⁰⁾

119) 채학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서울: 聯合通信, 1994), p. 240; 귀순자 김태범(1994.2.13 귀순)과 최명학의 증언.

북한에서 뇌물이 성행한다는 사실은 북한의 소설에서도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단편소설 「〈행운〉에 대한 기대」는 기차간에서 만난 市住宅配定處의 지도원에게 주택배정을 잘 받기 위하여 술을 뇌물로 건네주는 장면을 매우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주택배정처에 있습니다.〉

〈배정처에 있다가요?〉

〈왜 그렇게 놀랍니다? 아는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하는 말에 나는 저으기 당황했다. 안해와의 이야기에서 배정처가 하루에도 몇번씩 물망에 올랐다는것을 이야기할수는 없었다. 나는 심상한척 하려고 애썼다. (중략)

배정처라. 한번 찾아 가려면서도 용기가 없어서 못갔던곳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배정처가 나를 〈찾아온〉것이였다.

이런 기회란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어려울것이다. 이런 기회에 낫을 익혀두면 찾아가는것이 자연스러울것이 아닌가. 말이나 몇마디 주고받아서는 안면이 두터워질수 없다. 열차에서의 친분관계란 원래 열차의 속도처럼 가속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열차여행이 끝나면 빨리 스러져버리는것이다.

마침 가방안에는 장인에게 부어주려고 넣은 목이 오리목처럼 긴 〈고려인삼술〉 한병과 (안해가 넣어준것이였다.) 다른 용무에 쓸 〈대평술〉 한병이 들어있었다. 〈대평술〉 한병이면 안면을 어지간히 두터이 할수 있을것 같았다. (중략)

〈열차여행이야 지루한 법이지요.〉

〈그렇다면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하고 나는 가방에 손을 넣어 매끈매끈한 병모가지들 잡아뿔었다.

〈자-한잔씩 하면서...〉

하고 큰소리치며 병을 올려놓은 나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다. 손에 잡혀나온것은 〈대평술〉이 아니라 장인에게 부어주려던 〈고려인삼술〉이었다.

〈아니? 이거 혹시 대사에 쓸려고 가져가던 술이 아닙니까?〉

상대방의 놀랜 소리에 나는 서둘러 대답했다.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개잡으려고 든 몽둥이에 소가 맞아 넘어진격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바꿔 꺼낼수는 없었다. (중략)

장인에게 미안한 생각도 들었고 뽀루통해진 안해의 얼굴도 떠올랐으나 차라리 잘 됐다 하는 생각도 들었다. 배정처 지도원은 아마 열차에서의 〈고려인삼술〉이 인상적이어서도 나를 잊지 않을것이다. 울긋불긋한 상표와 황금빛의 술색깔을 통해서라도 나를 기억해낼것이다.

(중략)

〈예. 내립니다. 자-그럼.〉

할 말은 기가 막히게 많았으나 (아직 한마디도 못했었다.) 한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아, 아, 이걸 가지고 내리십시오!〉

지도원이 따지 않은채로 놓여있는 〈고려인삼술〉을 들고 소리쳤으나 나는 손을 저었다.

〈거기서 쓰십시오. 후에 한번 가겠습니다.〉

하고 소리친 나는 승강구로 달려나갔다. 내가 흠에 내려서자 기차는 기다렸던듯 덜컹하고 움직였다. 지도원은 병을 손에 든채 일어서서 차창으로 나를 내다보고있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그도 손을 저었다.

(아주 잘됐어!)

이제 출장을 끝내고 돌아가 배정처로 찾아가면 그도 반갑게 맞아줄것이다.

가방은 〈고려인삼술〉의 무게만큼 가벼워져 묵직한 감을 잃었으

나 마음은 흐뭇하기만 했다. 아마 안해가 오늘 열차칸에서의 나를 보았더라면 <아유, 당신에게 그런 재간도 있었어요?> 하고 감탄을 금치 못했을것 같았다. 이 세상의 남편들이란 좀 어리석은데가 있어서 안해들에게서 칭찬을 받고싶어하는것 같다.

<잘됐단 말아야.>

나는 다시한번 되뇌었다. 일생에 이렇듯 성공한 <외교>는 처음 인것 같았다.¹²¹⁾

중편소설 「분수령」은 결재를 받기 위하여 ‘먹자판’을 벌리거나 귀중하게 간직하는 個人所持品을 뇌물로 주어야 일이 해결되는 북한사회의 한 단면을 一般化하여 시사하여 주고 있다.

그는 극한점에서 쓰러진 마라손 선수가 이미 힘들게 달려온 100리길을 돌이켜보듯 통분한 마음으로 여러개의 도장을 오래오래 들여다보았다. 크기와 모양새, 색깔 지어는 비준란에 누르는 방식까지도 한결같지 않은 그 많은 도장들을 보노라니 도장의 임자들 얼굴모습과 성격들이 뚜렷한 표상을 그리며 안겨왔다. 아울러 그들 개개인을 설복하기 위하여 나오지 않는 억지웃음을 지어가며 무던히도 마음 고생을 했을 자재인수원들의 고충도 헤아려졌다. 천룡택이처럼 식당뒤골방에 들어박혀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먹자판을 벌려놓는것은 그에게 용돈이 넉넉해서 그러는것은 결코 아니였다. 본인을 설복하다 못해 그의 집에 찾아가 주부들의 환심을 산 사람들이 자존심이 없어서 그런 속된짓을 한것은 더욱 아닐것이다. 귀중하게 간직해온 귀한 물건으로 선심을 쓰는 그들이 인심이 후해서만 그런것도 아니였다. 그들도 남들처럼 랑심과 자존심이 있고

121) 한웅빈, “〈행운〉에 대한 기대,” pp. 65~66.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과 의리도 알고있다. 하지만 그 많은 도장을 받자니 자기자신들이 귀중히 여겨오던 그 모든것을 훼손시키고 처세하는것 까지도 꺼리지 않았던것이다.¹²²⁾

(2) 직장 절취(pilfering)

2차집단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적 자유회의 한 유형이 職場資産을 절취하는 瀆職行爲이다. 북한에서 식량과 생필품의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사회일탈 현상의 하나는 절취의 성행이다. 고위직뿐만 아니라 공장이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퇴근시에 직장의 자산이나 생산품을 한 두 개씩 훔쳐들고 퇴근한다는 것이다. 직장 절취행위도 연령, 성별, 학력 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일탈행위라고 한다. 오히려 고위직일수록 회수와 양이 더 많다고 한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안전부 사람들은 안전하게 뿍아 먹고, 보위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뿍아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뿍아먹는다”는 은어도 유행한다고 한다.¹²³⁾

한 귀순자에 의하면¹²⁴⁾ 북한 주민의 99%(도시농촌 가릴것 없고 각계각층의 사람)가 도적질을 해서 먹고 산다고 해도

122) 림재성, 「분수령」, pp. 177~78.

123) 前 조총련계 출신 제일교포학자 이영화 교수의 증언; 귀순자 윤웅의 증언.

124)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1994.11.1 인터뷰).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일년에 공장이 4~5개월 정도 돌아가는데 그 때 노동자들의 최대의 관심은 공장가동 기간중 공장생산물을 훔쳐서 퇴근하는 일이라고 한다. 공장이 돌아갈 때 훔쳐서 집에 쌓아놓고 다른 생필품과 바꾸어 사용한다고 한다. 북한의 안전부가 관리하는 교도소나 교화소의 경우 80~90%가 절도 등의 經濟事犯이라고 한다.

절도도 매우 성행한다고 한다. 귀순자 강철환의 증언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보면 기차안의 여기저기서 도둑맞은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차안에서 줄거나 굴속을 한번 지나고나면 짐이 없어지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한다.¹²⁵⁾ 귀순자 어승일의 증언에 의하면 트럭 운전수들이 차량의 부품을 도둑맞을가봐 밤새 차안에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절취행위는 소설의 소재로도 자주 등장한다. 북한의 장편소설 「환희」에 나오는 한 귀절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노출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북한 소설에서 북한 간부들의 개인주의와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시멘트 공장의 한 간부가 시멘트와 동관 등 공장자재를 몰래 빼내어 금지된 個人住宅을 지어 살고 있다는 것

125) 강철환·안혁, 「대왕의 제전」, pp. 61~62.

이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간부들이 競爭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배인 동무) 저 집들을 좀 보십시오. 훌륭하지요. 저 울타리 높은 집은 여기 로동자들이 18톤급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18톤의 세멘트가 들어간 집이라는 겁니다. 간부들이 경쟁식으로 개인주택을 지었지요. 울타리를 높이고 정원엔 감나무를 심고 포도넝쿨을 울리고 공장창고에서 동판을 빼서 아래방 구멍탄 아궁에 소형 보일러를 설치해서 칸칸이 온수가 돌지요. 세멘트가 많은 공장이 돼서 그러는가요? 그래도 지배인 동무는 그들을 두둔 하렵니까? 이제는 시내에서 이 언덕을 가리켜 ‘간부촌’이라고 합니다...¹²⁶⁾

같은 소설에서 공장 지배인이 工場病院의 약을 빼내어 훔쳐가는 사례를 보여준다.

어떤 지배인은 공장에 부임해오자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가약이나 보약들에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원장에게 암시하기도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등대고 로골적으로 보약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중략) 심지어 시집간 딸의 외손녀애에게 줄 보약까지 공장병원에 손을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¹²⁷⁾

같은 소설에서는 또 공장병원의 의사들이 공장 도서관의

126) 김봉철, 「환희」, pp. 134~35.

127) 위의 책, p. 150.

자료는 빌려 읽지 않으면서 공장의 고열탄은 집으로 많이 빼돌린다는 사례를 제시한다.

홍분? 그래 의사들은 인간이 어떤 때 흥분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부정이 정의를 희롱하는걸 보면서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 이제라도 간단히 우리 공장 도서실에 가보시오. 그러면 우리 기업소 기사들과 전문가들이 원서잡지나 책을 빌려다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알겁니다. 수백명의 기사, 전문가가 있는 이 공장에서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안정된 자리에서 편안히 살지요. 국가는 그들을 위해서 수만금 돈을 썼지만 어떤 사람들은 땀 한방울 바치는 걸 아까워하지요. 이래도 흥분하지 말아야 하는가요? 소성로엔 저열탄이 들어가서 크링카가 설익어도 저희집엔 고열탄만 실어잡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줄 압니까. 생산을 책임지고있는 일정한 직급의 인간들이지요.¹²⁸⁾

앞에서는 인민들에게 집단주의와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요하면서도 뒤돌아서면 뇌물 긁어모으고 國家財産을 빼들려서 私慾을 채우기에 바쁘다는 것을 암시한다.

같은 소설에 노동자들의 절취행위에 관한 묘사도 나온다.

<말이 났으니 지금 그 바깥쪽이 일부 일군들에 의해서 농촌으로 빠져나가서는 술이 돼서 누구 입에 들어가는지 동문 알고있겠지? 해변가에 나가서는 물고기가 돼서 누구네 집 처마에 주련이 걸린다는걸 동문 모르오? 이 큰 공장을 두고 녀인들이 기와장을 들고

128) 위의 책, pp. 317~18.

가서 바께쓰나 딸따리를 바꾸게 한다는게 말이되오?)¹²⁹⁾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나르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바께쓰를 노동자들이 절취하여 술로 바꾸어 마시기도 하고, 생선과 바꾸어 처마에 걸어놓고 말려서 먹기도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단편소설 「삶의 자격」은 자갈채취 작업에 인센티브 고취용으로 배급된 상품들을 조카의 婚需品으로 절취해서 쓴다는 내용을 소재로 하고 있다.

<헛참, 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사흘이면돼. 큰 준비는 다 됐겠다 할게 뭐 있냐.>

무슨 어처구니없는 소리냐 하는 뜻이 아버지의 얼굴과 억양에서 짙게 풍겼다.

<아, 형님이 며칠 없다고 공사가 안되겠소? 원참... 그러구 명순이 신혼살림준비는 내가 본때있게 해놨으니 형님은 가서 그저 잔치만 주관하시우.>

일때문에 바빠 돌아가는 삼촌이 언제 그렇게 했다는건지 의문이 풀리지 않는듯 아버지는 따지는 조로 물었다.

<건 무슨 소리냐?>

<이번에 자갈채취경쟁상품이 좀 내려왔는데 내가 다 말아안고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폰드로 신혼살림에 필요한것들을 두루 좀 당겨놨수다.>

삼촌이렇게 제구실을 해야 후에라도 조카들한테 술 한잔 받을

129) 위의 책, pp. 230~31.

자격이 있지요.)

내가 책임자니 모든 처분은 응당 내 마음이라는 속대사가 삼촌의 말속에 숨어있었다.¹³⁰⁾

귀순자들의 증언과 북한 소설에 나타난 몇가지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한에서 뇌물과 절취행위가 매우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차집단에서의 사적 자율화는 경제영역에서 제2경제의 성행과 더불어 북한경제의 침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4. 下位文化: 외국음악, 패션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공적 세계를 사적 자율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 현상은 下位文化 또는 第2의 文化의 발달이다. 제2의 문화의 목적은 국가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자는 것이 아니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색다른 삶의 양식을 누리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제2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³¹⁾ 제2의 문화의 현

130) 윤경찬, “삶의 자격,” 「청년문학」 (1990.10), p. 34.

131) Skilling and Wilson, eds., *Civic Freedom in Central Europe*, p. 7.

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록문화의 확산이다. 록문화는 일종의 反社會主義化 과정이었다. 청소년들을 사회주의적 가치와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교육하고자 하는 당국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록문화는 개인의 감정을 고양하고, 대중가수를 우상화하며, 자본주의 西歐文化를 찬미하며, 黨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유행과 행위를 도입하는 것이다.¹³²⁾ 제2의 문화라는 개념은 Ivan Jirous에 의하여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non-conformist 록음악이나 그러한 감각에 맞는 일부의 문학, 또는 예술 공연 등을 지칭했었는데, 제2의 문화라는 개념은 급속히 탄압받는 문화의 전 영역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즉, 예술분야뿐 아니라 인문학, 자연과학, 철학적 사상에까지 확대되었다. 제2의 문화는 책이나 잡지의 지하출판, 비공식 공연이나 콘서트, 세미나, 전람회 등을 포함한다. 폴란드의 경우는 제2의 문화가 가장 많이 발달되었는데 地下出版社가 있으며, 많은 종류의 정기간행물이 나오며, 복사기 외에 인쇄기까지도 있다. 소련의 경우는 samizdat라고 불리는 지하출판이 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문화의 영역에서 사적 자율화가 가장 고도로 발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³³⁾ 이러한 여러 가지

132)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p. 172~73.

징후를 헨키스는 第2의 社會라는 말로 개념화하였다.¹³⁴⁾

나. 北韓의 경우

북한은 철저한 閉鎖政策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사조가 점차 번져가고 있다. 소련 및 동구의 경우 보다는 훨씬 미약하지만 북한에도 서방의 문화가 유입되어 下位文化를 형성하여 문화영역에서 사적 자율화가 성장하고 있다. 서구문화가 북한사회에 확산하게 된 계기는 동구유학생, 조총련, 북한내 친척을 방문하는 재미동포 및 중국동포들을 통해서 들어온 개방 물결의 영향 때문이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 기간 동안 영화축제, 서구 영화의 TV방영 등의 행사를 통하여 외국 문물이 마구 쏟아져 들어와 개방분위기가 만연했다. 방문객들로부터 의상스타일, 노래, 춤 등을 보고 배운 것이 평양에서 유행하고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북한당국이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도입한 골프장, 가라오케, 야구장, 전자오락, 디스코텍 등 자본주의식 레저생활도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하나의 下位文化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¹³⁵⁾

133) Vaclav Havel, et al., *The Power of Powerless* (New York: M. E. Sharpe, 1985), pp. 78~79.

134) Hankiss, *The Second Society*.

135) 「世界日報」, 1992.3.11.

북한 문화영역에서 私的 자유회의 첫번째 유형은 록음악과 디스코이다. 평양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디스코풍의 록음악을 즐겨들으며 은밀한 곳에 모여 디스코를 추기도 하는데 이같은 젊은이들은 대부분 일본, 홍콩 등지로부터 방문하는 상인을 통해 카세트 라디오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고급 당간부 자녀들이라는 것이다. 평양에는 주민을 위한 공개적인 디스코텍은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 등 10여곳에는 디스코텍이 설치되어 있는데, 黨幹部 자녀를 비롯한 일부계층은 외화와 바꾼 돈표 3원을 내고 입장하고 있으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과 동행하여 입장하려고 호텔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¹³⁶⁾

文化的 自律性的의 두번째 유형은 북한 주민들의 남한노래 애창이다. 바람 바람 바람, 이별, 타향살이, 각설이타령, 언제라도 갈테야, 그때 그사람, 낙화유수, 배사메무초 등이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남한노래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思想性만이 강조되는 북한 가요에 비해 볼 때 한국의 대중가요가 대부분 사랑과 낭만을 그리고 있어 정서상으로도 쉽게 친근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들은 대부분 중국의 연변지역에서 유행하다가 북

136) 「內外通信」, 週刊版 第745號, 1991.5.24.

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북한에서 1992년부터 對南敵愾心 고취용으로 제작된 한국배경영화 「민족과 운명」 시리즈에 삽입되어 있는 곡들이라고 한다. 특히 1989년 평양축전때 남한 노래가 대량 유입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노래들이 처음에는 남한노래라기보다는 연변노래로 알려졌으나 보위부에서 단속하고 금지시키는 등의 당국의 과잉반응 때문에 점차 남한 노래로 알려졌다고 한다.¹³⁷⁾ 이러한 노래들이 유행하는 데에는 카세트 녹음기 소지의 유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한다.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청소년들에게 녹음기 소지 바람이 불고 있으며, 방직공장의 경우에도 각 합숙소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들 청소년들은 대부분 암시장에서 카세트 녹음기를 구입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노래 테이프를 은밀하게 서로 돌려가며 복사하여 음악을 듣고 있다고 한다.¹³⁸⁾

문화적 사적 자율화의 세번째 유형은 패션의 自律化이다. 남자의 경우는 인민복, 여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 등으로 集團主義式 복장을 착용했으나 이것이 다양한 패션으로 바뀌어짐으로써 衣服生活이 자율화된 것이다. 이러한 자율화는 김정일 후계자로 결정된 1970년대부터 당국의 권장에 의하

137) 귀순자 운용, 고청송의 증언.

138)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 (1994.8), pp. 22~23.

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일본 북송교포 친척들의 잦은 방문을 통해서 서서히 유입된 서구사회의 각종 패션이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 및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평양축전이 열린 1989년 이후 여성패션이 본격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통제생활과 점차 심화되는 경제난 등으로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의 不滿이 조금씩 표출되기 시작하자 이를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옷차림에 대한 통제를 푼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¹³⁹⁾

5. 小結

동구 및 소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개인, 원초 집단, 2차집단, 국가의 수준에서 북한 주민들은 集團主義的 原則을 따르다가 보다는 남보다 쉽게, 남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친척, 친구, 연인관계의 연줄을 활용하여 집단주의적 원칙을 위반하며, 公的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뇌물, 절취 등의 瀆職行爲가 만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소련 및 동구사회의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료주의가

139) 귀순자 윤웅의 증언; 「內外通信」, 週刊版 第910號, 1994.7.21, pp. 19~20; 「內外通信」, 週刊版 第919號, 1994.9.22, pp. 1~4.

고도로 발달한 북한사회에서 이러한 사적 영역의 활용은 서방사회에서보다 훨씬 더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인 영역에서도 下位文化가 발달하고 있다. 그러나 소련이나 동구에서 정도의 多元主義가 발달하지는 않은 만큼, 하위문화 영역에서는 소련 및 동구에서와 같은 정도의 활발한 사적 자율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신문 같은 것은 북한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동구 및 소련사회에서처럼 북한사회에서도 사회적 영역에서의 第2社會가 성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경우가 소련이나 동구사회의 경우와 비교할 때 정도에 있어서는 미약하지만 북한에서의 변화는 지난 1989년 이후 급속히 일어나는 변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사회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第Ⅳ章 政治領域에서 私的 自律化

전체주의 사회에서 경제영역만큼 정치영역이 사적 자율화 되지는 않지만 정치영역에서도 일정한 형식의 私的 自律化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소련 및 동구의 경우 1980년대 말에 와서는 경제적·사회적 사적 自律化의 발달이 정치적 자율화를 폭발적으로 발달시켰다. 결국 그것이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켰다. 북한사회 정치영역에서 어떻게 사적 자율화가 진전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주의적 實用主義 및 外樣的 순종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지배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개인주의적 實用主義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아베크롬비가 적절히 지적하는대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지배이데올로기가 완전히 內面化된 경우는 없다. 인류역사에서 지배이데올로기는 일방적으로 내면화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에 의하여 재해석되고 수정되는 투쟁의 대상이었다.¹⁴⁰⁾

140)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Turner,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하벨에 의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외관상으로는 지배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행위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주어지는 처벌이 무서워 위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內心으로는 다른 價値意識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¹⁴¹⁾ 하벨은 사회주의 사회 피지배자들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면 체제에 順應하는 것처럼 인정받기 때문에 피지배자들에게는 체제순응의 알리바이로 활용된다고 보았다. 체제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 사이의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배이데올로기가 後期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체제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지배이데올로기는 체제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에게 동시에 辨明的인 機能(excusatory function)을 한다는 것이다. 하벨은 후기 전체주의 체제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야채가게 유리창에 걸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플래카드에 비유하였다. 야채상은 그 구호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자기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것도 아니다. 단지 상부에서 걸어놓으라고 갖다주기 때문에 걸어놓은 것이며,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며, 남들이 그렇게 하니깐 자기도 그렇게 하는

1980), p. 3.

141) Havel, et al., *The Power of Powerless*, p. 30.

것이며,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體制順從的이라는 알리바이가 되어 체제로부터 보호를 받게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게 유리창에 이 슬로건을 걸어놓는 한 야채상은 얼마든지 資本主義的 방식의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⁴²⁾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쉘라펜토크의 實用主義와 神話主義의 이중구조의 개념과 유사하다. 쉘라펜토크는 소련인들의 意識 속에 경제적 실용주의(pragmatic value)와 정치적 신화주의(mythological value)라는 두 가지의 다른 수준의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실용주의는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며, 신화주의는 支配理念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 유지를 추구하는 의식이다. 소련인들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행위는 실용주의에 의하여 움직이며, 정치적 영역에서의 행위는 신화주의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한다. 실용주의적 행위는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이든 보수가 주어지는 것이면 다 포함되는 광범위한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도 높은 임금, 사회적 위신 등 物質的 目標을 획득하는 한 실용주의에 의하여 통제된다고 볼 수 있다.¹⁴³⁾ 경제영역과 정치영역에서 실용주의와 신화주의라

142) Ibid., pp. 27~29.

143)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는 二元的 의식을 가지고 균형을 취하고 있는 것은 소련의 정치체제에서 개인이 적응하는데 필수적인 生存戰略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개인이익만 추구하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정치적 순종만 한다면 생필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종교인들이 기도의식에서 종교인들과의 대화는 종교인처럼 행동하지만 일상생활에 돌아와서는 종교인임을 망각하고 종교적 계율을 잘 실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인들의 신화주의란 사회환경과 지배이념에 대한 적응양식의 하나로서 체제와 이념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타인과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념으로 이야기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지배이념을 망각하고 개인주의적 실용주의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권력, 사회적 위신, 섹스, 음주, 생필품의 수집과 같은 물질주의, 헤도니즘,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이다.¹⁴⁴⁾

이러한 실용주의적 가치지향은 職業選好의 성향에서도 잘 나타난다. 소련의 인민들은 사회의 유용성이나 국가 지도자의 호소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하여 중요하다면 다행이지만 개인이 직

Eastern Europe, pp. 97~98.

144) Vladimir Shlapentokh, "Two levels of Public Opinion,"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9 (1985), pp. 448~49.

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물질적 보수, 사회적 위신, 작업조건, 자율성 등이다. 輿論調査에 의하면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 보수와 주거 조건(임금, 주택조건, 자녀들을 위한 시설)이며, 그 다음이 노동조건(노동강도, 청결성, 노동시간 등) 이라고 한다.¹⁴⁵⁾ 1960년대에는 인기가 없던 버스 및 트럭 운전수와 같은 직업들이 1980년대에는 인기직종으로 부상한 것이다. 또한 腐敗가 소련사회의 전 영역에 침투하면서 직업의 인기서열을 바꾸었다. 소비재 및 서어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직업들의 지위가 높아졌다. 이 때문에 1960년대에는 젊은이들에 의하여 공공연히 멸시를 당했던 상업과 서어비스업의 인기가 대단히 높아졌다.¹⁴⁶⁾

나. 北韓의 경우

한 귀순자는 북한에서 主體思想은 벽에 걸린 초상화와 유사하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¹⁴⁷⁾ 하벨이 동구에서 관찰한 야채가게의 유리창에 걸린 플래카드와 유사한 표현이다. 주체경제가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주체사상이 실패했다고 한

145) Ibid., pp. 74~75.

146)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79~80.

147) 귀순자 김영성(1992.6 귀순)의 증언(1994.3.9 인터뷰).

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팬은 소년단, 사로청원까지, 입대한 청년까지이며 학교를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하면 인간개조사업과 사상학습의 효과는 감소한다고 한다.

주민들의 日常生活에서 지배이데올로기가 퇴조해있음을 경제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에서 이미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의 퇴조를 시사하는 몇가지의 에피소드를 소설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장편소설 「환희」에서 지배이데올로기인 勞動階級 領導論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한 노동자가 자기는 지배인 딸하고는 상대가 안된다는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노동계급 영도의 지배이데올로기는 虛構임이 잘 드러나 있다.

성호는 내친 걸음이라 한마디 더 할 작정을 하고 보꾸레미를 쥐고 문가에서 돌아섰다.

〈하긴 나같은 로동자가 지배인 딸하구 상대가 될라구. 간부들은 제 딸 값을 굉장히 높이더라. 현정학부기사장을 보니...〉¹⁴⁸⁾

장편소설 「먼길」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생활의 원칙들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非常識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부부간에 동무라고 부른다는지, 가

148) 김봉철, 「환희」, p. 316.

정에서 思想鬪爭을 하고 자기비판을 하는 것은 우스운 짓이라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상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식적 세계와 비공식적 세계간에 깊은 간극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들은 맥주마신 뒤끝의 흥겨운 기분으로 피아노에 앉아 노래를 부르다가 의자맡에 꼬꾸라져 잠들곤하였다.

퇴근하여 아들의 그 꼴을 보는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슬픈 어조로 탄식하였다.

〈의자맡에 쓰러져있는 저 철부지가 내 아들이란말인가?〉

문밖에 나가면 어데 가나 꽃다발속에 묻혀사는 저명한 작곡가였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밥맛조차 없어서 수저를 집어던졌다.

〈기다려보지요. 철이 들면 달라지겠지요.〉

안해는 남편을 위안하려 하였다.

〈듣기 싫소. 저자식을 혁명화시킬만한 곳을 탐문하는중이요.〉

〈당신 눈엔 그렇게 보인단말이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동무도 견해가 잘못 서있소, 가정에서도 사상투쟁은 매 시각 해야 하오. 동무부터 자기를 비판하란말이요.〉

〈아니 여보, 나더러 동무동무하면서... 그래 집에서 매 시각 사상투쟁을 하겠단말요. 그럼 회의실도 꾸려놓지요.〉

아들로 하여 어느 하루도 편안치 못한 예술가부부였다...¹⁴⁹⁾

장편소설 「먼길」은 북한에는 영웅, 성실한 혁명가, 戰士들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주민 구성에서 基本群衆과 복잡한 군중으

149) 정창윤, 「먼길」, p. 31.

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은 유추할 수 있다.

기자인 나는 우리의 동시대인들은 영웅들이라고만 써왔다. 우리가 사는 시대엔 성실한 혁명가, 난관앞에서 주저앉을줄 모르는 전사들만 살고 있으며 일하고 있는 것으로 써온것은 나의 잘못이었다.¹⁵⁰⁾

단편소설 「초불」에서는 북한의 기업관리소에서 상부에 虛僞報告를 하는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북한의 당국과 언론이 목표액을 초과달성했다는 선전이 企業次元에서 이미 조작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경수는 기업관리에서 수자에 밝은 수완있는 일군으로 과당성있는 사람으로 인기있었다.

그런데 그 인기가 도를 넘어 월계획을 미달한 경우에조차도 문계획일군마저 무색할 정도로 생산수자를 묘리있게 둘러맞춰 중업원들한테 계획수행상급이 차례지게 했고 매달 금액상계획을 못해본일 없는 주견있는 <일군>으로 이름을 날리고있었다. 생산지표 별계획은 미달한채로 넘어갔지만...¹⁵¹⁾

단편소설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사회주의 勞動階級을 단결시키는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문

150) 위의 책, p. 58.

151) 전세창, “초불,” p. 30.

구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당신들이 잃을 것은 철췌요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라는 구호가 북한의 현실에서는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자가 조롱당할 뿐이며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직업일 뿐이라는 것이다.¹⁵²⁾

야무지게 생긴 사내아이 하나가 모래무지우에 올라서더니 <우리 아버지는 별을 달았어. 두개나...>하고 우쭐거리었다. 그러자 다른 한 아이가 팔을 뽑고 나섰다.

<우리 아버지는 별이 세개야.>

장난끝에 아버지자랑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흥, 그까짓 별. 별이면 단줄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입술을 비쭈거리며 한마디 하자 야무지게 생긴 사내아이가 대들었다.

<뭘, 아무것도 아니라구? 그럼 너의 아버지는 뭐냐? 흥, 로동자지, 로동자... 너의 아버지는 요거야, 요거!>

그 아이는 너의 코앞에 까맣게 때문은 새끼손가락을 내들고 까불까불 흔들었다. 그러자 너는 말 한마디 못하고 얼굴이 빨개서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중략)

152) 1946년의 상황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소설이지만 1992년에 씌어졌다는 점에서 최근의 북한실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사회에서 육체노동자들에 대한 천시와 정신노동자들의 選民意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서재진, “통일한국의 계급문제: 통일이 북한주민의 직업적 위신의 변화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서울: 한국정치학회, 1993) 참조.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로동자는 이 두주먹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 두주먹으로 이제 온 세계를 얻는단말 일세. 알겠나?〉

〈뉘? 온 세계를?〉

춘선이 는 놀라서 입을 헝 벌리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내가 그 때 왜 것처럼 희떠운 소리를 했던 지 알 수 없다. 남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은연중에 변호해보려는 마음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된다.

〈온 세계를 얻구말구. “전세계 무산자는 단결하라. 당신들이 잃을 것은 철썹요 얻을 것은 온 세계이다” 이런 말을 못들었나?〉

〈허허... 자네 참, 대단하네. 그럼 무산자어른이 어서 온 세계를 얻게나. 나는 농사를 잘 지어서 장군님의 은덕에 보답하겠네.〉

나는 그날 하루종일 춘선이네 밭갈이를 도와주고 저녁밥까지 먹은 후 어두울 무렵에 집으로 향하였다.

밤하늘에 별빛이 총총하였다.

햇풀을 배부르게 뜯어먹은 말을 끌고 몇걸음 앞서서 흔들흔들 걸어가던 호철이가 그즈음에 새로배운 노래를 흥얼거리었다...

아세아 무산자 구라파 로동자

전세계 로동자 총동원하여라.

호철의 노래소리를 듣는 나의 머리속에서는 오늘낮에 춘선리와 나눈 이야기들이 생각났다.

남에게서 얻어들은 희떠운 소리를 마구 내던진 자신이 어리석게만 생각되었다.

(온 세계를 얻는다고? 무엇으로 어떻게 얻는단말인가. 아들녀석한테 몇몇한 아버지라는 인정도 못얻고있는 주제에 온 세계를 얻기는 어떻게 얻는단말인가.)

나의 눈앞에는 문득 아들이 내흔들던 새끼손가락이 떠올랐다. 까맣게 때문은 그 새끼손가락이 아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었고 로동자의 모습이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부끄러웠다. 인간으로서, 아버지로서 부끄러웠다.¹⁵³⁾

지배이데올로기가 퇴조하고 대신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은 新中間階級 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소설에 나타난 職業選好意識 분석을 통하여 발견되었다. 단편소설 「강변의 버드나무」는 한 탄광노동자의 자기 직업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가치지향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전문학교시절 탄부가 되리라고 꿈엔들 생각이나 했으랴. 그의 희망은 커다란 늪창으로 해살이 버그러지게 들어오는 깨끗하고 정갈한 설계실에서 복잡한 프로그램도 척척 작성해내는 전자공학전문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대의 비등된 열의, 젊은 혈기의 일시적인 충동이 그를 탄갱속에 떠밀어넣었다. 그가 탄광으로 진출하던 해는 온 나라의 관심이 석탄전선으로 쏠리던 시기였다. 바로 그 해에 전문학교를 졸업한 희철은 탄광으로 진출할 것을 결의해나선 학급동무들과 함께 수도에서 70여리 상거한 독골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이다. 탄광에 와서야 자기의 일시적인 충동이 어떤 결과를 빚어냈는지를 깨닫고 무척 놀랐다. 지압에 놀려 쇠동발이 하루밤새에 한뼘씩이나 내려앉고 탄벽을 허무는 발파의 진동이 때없이 줄달음치는 땅, 모든 것이 검은색갈을 띤 탄전은 참으로 류다른 땅이다. 여기서는 석탄과 버럭처럼 참과 허위가 쉽게 갈라진다. 희철은 날이 갈수록 이 탄광에서는 자신의 리상을 실현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그 생활에 정들고 익숙되어보려고 애써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별반 소득이 없었다. 지하의 엄혹한 자연앞에서 뒤걸음질치는 그의 마음은 식수가 질척거리는 막장길을 더듬어갈 때면 어느덧 수도의 화려한 거리를 거닐고 있었다. 깊은 밤 합숙

153) 리성덕,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청년문학」 (1992.4), pp. 70~72.

호실창가에서 멀리 버럭산우에 반짝이는 외등을 볼 때면 인민대학 습당의 조용한 전자계산기 강의실에 앉아있는 자신을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렇게 여섯해 세월이 흘렀다. 마침내 희철은 더는 견디어 내지 못하고 부르짖었다.

(탄광에서 이만큼 일했으면 죽하다. 난 이제는 나의 리상을 실현해야겠다!)

그날부터 희철은련합기업소 로동과문턱을 넘나들기 시작했다. 석달만에 채취공업위원회에 있는 형님의 도움밑에 희망이 성취되었다.¹⁵⁴⁾

이 소설을 통해서 볼 때 탄광에 오게 된 것도 당국의 煽動에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원하기는 했지만 탄광생활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개인의 보다 편한 생활을 위하여 떠나고 싶어하는 것을 볼 때 결국은 노동자보다는 新中間階級 지향적인 가치의식이 지배적임을 시사한다.

중편소설 「해빛」에서 의사라는 직업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美化하고 있음을 볼 때 북한사회에서 勞動階級的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의 안일함과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대단히 강함을 알 수 있다.

눈결같은 백포휘장들을 드리운 정갈하고 아늑한 방안에 정적을 깨칠가 저어하듯 하늘색의 은은한 빛발들이 황홀하게 흘러내리고 그 속을 오락가락하는 하얀 위생복차림의 녀의사는 마치 꿈속의 구름발을 헤치는 신선처럼 신비스럽게 보였다. (인젠 거기 과장선

154) 손광영, “강변의 버드나무,” p. 55.

생한테 달라붙어야겠어.) 미리 사업을 잘해둬야 광선치료실로 갈 것 같았다.¹⁵⁵⁾

중편소설 「해빛」을 통해서도 집단적 생활과 힘든 일보다는 개인적 삶의 여유와 애인과의 個人的인 浪漫이 증시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수향이는 온종일 환자들과만 씨름하는것이 영 질색이었다. 애인과 함께 산보는 물론 극장, 영화관 출입과 같은 극히 적은 생활적 여유도 없어야 무슨 사는 재미가 있으랴.¹⁵⁶⁾

단편소설 「첫직업」도 한 주물기능공이 자신의 직업을 보람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며 떠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느날 상혁은 나를 찾아왔다.

<직장장동지, 한가지 방조를 받자고 왔습니다.>

그는 내앞에 흰종이장을 내보였다. 그것은 <기관장양성소> 추천용지였다.

뜻밖이었다. 다름아닌 상혁이가 이런걸 제기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던 나였다.

<왜 주물이 싫은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좀더 보람있는 일을 하렵니다.>

<그래 주물은 보람이 없단 말이지?>

155) 박찬은, 「해빛」 (평양: 문예출판사, 1985), pp. 208~09.

156) 위의 책, p. 140.

〈그래도 공화국기를 날리며 세계를 항행하는 그 일어야 대겠습니까?〉

상혁의 얼굴엔 앞으로 택하게 될 자기의 직업에 대한 궁지가 어려있었다.

〈안되오. 동무같은 기능공은 보낼수 없소.〉

나는 거절했다. 그러나 상혁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주물직장에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해온 자기를 생각해서라도 꼭 보내달라고 간청도 했고 자기의 발전을 막아나선다고 꾸밈도 했다. 나는 할수없이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수 없었다. 상혁은 돌아갔으나 나는 오래동안 의자에서 일어설수 없었다. 귀중한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처럼 속이 허전했다.¹⁵⁷⁾

개인이익을 극대화하고 계층의 사다리를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大學進學이 필수적이다. 북한 소설에는 대학진학을 갈망하는 내용이 자주 나타난다. 단편소설 「고향의 물소리」는 논물관리공이 대학진학을 얼마나 간절히 갈망하는지를 잘 드러내어준다.

〈나를 대학에 보내주십시오.〉

고향사람들앞에 이렇게 떳떳이 청원할수 있을 때까지 나의 이 꿈을 공개할수 없다. 나는 이 〈청원서〉를 고향의 배반자라는 락인을 받기 쉬운 펜으로가 아니라 나의 재능과 아낌없는 땀으로 쓰려고 노력해왔다. 그런 희망을 안고 꾸준히 일해온지 벌써 3년째다. 올가을에는 꼭 대학에 갈수 있으리라 믿고있었던 노릇이 하루아침에 논물관리공이 되고보니 이제까지 쌓아온 노력의 탑이 하나 들

157) 리승두, “첫직업,” 「청년문학」, pp. 20~21.

무너지기 시작하였다.¹⁵⁸⁾

단편소설 「우리의 행진곡」도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이며 大學進學에 부여하는 가치지향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노동자로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귀절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支配的 價値는 오히려 조롱당하고 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상략) 사회생활이란... 더구나 이제는 군대생활과 다르잖아요. 가정두 있구... 제발 부탁해요. 그 순진성에서 벗어나세요. 당신은 무역상사에서 얼마간 일하다가 대학에 가야 해요. 원산경제대학 같은데 말이에요... 더 행복한 생활은 앞에 있어요. 둘이 함께 그 행복을 쟁취하자요.>¹⁵⁹⁾

단편소설 「따스한 바다」는 자식을 大學에 보내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한결같은 소원임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저 뭐니뭐니해도 제일 그리운건 손주녀석들이다. 광룡세한테는 손주 다섯이 있다. 그중에 둘째한테서 본 손자 들은 제 애비가 군사복무를 하고 있는 전연지구에서 살고 집에는 맏이네가 본 손자녀석 하나와 복술강아지같은 귀여운 두 손녀가 있다. 광룡세는 그것들을 공부시켜 집안에서 농학박사나 그러루한 학자가 한둘쯤

158) 김주현, “고향의 물소리,” 「청년문학」 (1989.7), p. 38.

159) 리강철, “우리의 행진곡,” 「청년문학」 (1990.7), p. 32.

나오는게 큰 소원이다. 그렇게 못될리도 없다. 큰며늘애가 학교때 머리 좋기로 소문이 났다더니 그한테서 본 맏손자녀석은 공부를 잘한다고 칭찬이 여간 아니다. 그녀석이 보고싶다.¹⁶⁰⁾

단편소설 「실습보고서」가 시사하는 대로 配偶者 선택도 黨性이나 사상적 의식보다는 학력과 외모가 기준임을 시사하고 있다.

저의 배우자 선택문제는 미술공부에서 뜨르르하게 성공을 본뒤에 심중히 연구해볼 작정이였습니다.

좋기는... 미술가의 안해답게 지성수준이 높고 그러면서도 가정살림 돌볼 시간이 비교적 풍성한 직업을 가진 대학졸업생처녀, 외모도 뛰어나게 잘생기고...

후리후리한 키에 무용수처럼 날씬한 몸맵시, 목소리도 맑고 부드럽고...¹⁶¹⁾

배우자뿐만 아니라 며느리감을 고르는데도 학력이 대단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며느리에 대한 사랑이 黨性이나 집단주의적 의식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실에 기인함을 볼 때 북한사회 주민들의 價値意識을 잘 알 수 있다.

곽룡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며늘애 아끼는 마음은 안해와 같

160) 최성진, “따스한 바다,” 「조선문학」 (1993.9), p. 47.

161) 허창근, “실습보고서,” 「조선문학」 (1993.1), p. 62.

다. 공부를 많이 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온것이 광룡세에게는 은근한 자랑이기도 하다. 광룡세는 며느리의 마음을 안다. 큰며느리에게는 송화벌에 알곡대풍을 안아오고 온 마을이 과일향기속에 묻히게 하려는 꿈이 있다. 큰며느리가 애를 써서 집집마다 과일나무 열그루씩 심도록한 일도 은을 내어 작년에 벌써 첫 열매들을 따다. 사람은 일이 고운것이다.¹⁶²⁾

이상의 소설분석에서 귀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은 북한 주민들에게 공적인 가치는 때때로 조롱당하고 있거나 퇴색되었으며 대신에 新中間階級 지향적인 정치의식과 개인주의적 實用主義가 주민들의 주된 관심임을 알 수 있다.

2. 選好僞裝과 外樣的 순종

가. 蘇聯 및 東歐의 사례

지배이데올로기가 퇴조되고 실용주의적 新中間階級 지향적 가치의식이 발달했다고해서 정치적으로 저항이 表面化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경제행위와는 다르게 정치행위에서는 국가의 공식적 요구에 더 근접해 있다. 경제와 정치의 행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경우, 政治的 順應은 인민들의 물질적 이익과

162) 최성진, “따스한 바다,” p. 47.

상충하기 보다는 정치적 충성은 오히려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物質的 成功은 육체의 피로가 수반되는 근면, 전문기술, 경험이 요구된다. 그러나 정치적 지침을 이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의례적 演技(ritualistic performances)만 하면 되는 것이다. 지배 엘리트는 진실된 감정이나 사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에 대한 형식적 복종을 연출하는 의례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다. 셋째,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부에게 경제의 중요성이 아무리 인식되었다고해도 정치의 역할은 훨씬 더 큰 것이다. 스탈린 死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에서 공공연한 테러가 사라졌다든지, 정치적 억압이 완화되었다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수동적인 인민에 대하여 관용적이기는 하지만 政治的 多元主義로 향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붕괴된 이전까지도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과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일탈자나 혐의자에 대하여는 즉각 처벌이 가해지며 일단 낙인이 찍히면 대학진학, 해외여행, 사회적 출세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¹⁶³⁾ 넷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가 모든 부문에서 무능할지라도 정치적 독재에 도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우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을 만큼 충

163)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p. 95~96.

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¹⁶⁴⁾ 인민들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하는 것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는 막강한 정치권력과 엄청난 무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 服從은 유도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소련 국민의 정치적 복종은 대개 속마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依例的 行爲(ritualistic deeds)에 불과하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과 의례적 순종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체제는 대부분 붕괴하고 말았다.

큐란은 외관상 안정된 것으로 보였던 사회주의체제가 급속히 붕괴된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選好僞裝(preference falsification)이라는 개념이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큐란은 동구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은 私的인 선호와 公的인 선호라는 이중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공식적인 공간에서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부합되는 또 다른 가치관과 행위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큐란은 이렇게 개인이 공적 세계에서 표출하는 행위와 개인이 실제 지향하는 가치의식 및 행위양식에서 괴리가 있는 경우를 選好僞裝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인민들의 외양적 행동이 위장되어 있

164) Ibid., p. 229.

어서 관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難攻不落의 견고한 城으로 보였던 사회주의 정권이 급격히 붕괴되고 미미했던 것으로 보이던 사회저항세력이 雨後竹筍처럼 혁명적 세력으로 돌변한 것은 위장되어 감추어진 인민들의 저항의식이 분출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¹⁶⁵⁾

큐란은 사회주의체제의 인민들이 외관상으로나마 체제를 지지하고 순응하는 것은 감시와 처벌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는 외견상 보이는 순종과 침묵보다는 체제 정당성의 기반이 매우 취약하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결이 허구이며 현상에 대하여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민들의 지지는 매우 약하다고 지적하였다.¹⁶⁶⁾ 큐란은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사회일수록 선호위장이 발달하며 인민들의 意識構造를 관찰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다.¹⁶⁷⁾

이러한 의식구조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거짓말과 허위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의 선택, 거주지, 오락의 종류, 결혼상대자, 친구의 선택 등 중요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인정되고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거짓

165)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p. 13.

166) *Ibid.*, p. 33.

167) *Ibid.*, p. 47.

말이 불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롭고 비판적인 사고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존의 수단으로서 거짓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경제영역에서의 모든 불법적 행위,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체제에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해야 하는 것이다.¹⁶⁸⁾ 체제에 外樣的 順從을 하는 채 하면서 사적·불법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에서 이러한 外樣的 順從이 점차로 組織的 抵抗으로 발전되었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혁명적 체제 변화를 야기하여 결국은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고 말았다. 소련에서 반체제는 레닌과 스탈린 治下에서 분쇄되었으며 후르시초프 시대에 간헐적으로 등장하였으나 1970년대에 정치적 反體制가 부활하게 된 것은 1975년의 헬싱키 선언(Helsinki Agreement 또는 Accords)에 기인한다. 헬싱키 선언을 통한 서방국가들에 의한 사회주의권의 인권문제 제기는 사회주의권의 反體制 運動에 큰 자극을 주었다.

소련에서 헬싱키 조약 감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인권유린 사례를 samizdat라고 불리는 地下新聞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물리학자 사하로프를 포함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체포되고 추방되었지만 그들은 1980년대의 더욱 본격적인 反體制運動의

168) Shlapentokh,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pp. 159~60.

씨앗을 뿌려놓았다.

비슷한 단체들이 동구의 여러 나라에서도 결성되었다. 소련에서보다는 더욱 강하게 오래 지속되었다. 그 이유는 스탈린주의하에서의 기간이 보다 짧았고 2차대전 전의 민주주의의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반체제인사는 대체로 소규모의 지식인 그룹에 한정되었다. 동구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가 77헌장이다.¹⁶⁹⁾

1980년대 후반에는 이전 시기의 소수의 조직에 의한 저항이 사회 전체의 저항으로 발전하여 결국은 동구 및 소련의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고 말았다.¹⁷⁰⁾ 헝가리에서는 1980년대 이후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한 민주화가 본격 추진되어 1989년 1월에 집회 및 결사에 관한 법안이 국민의회에서 가결되어 복수정당제의 길이 트인 이래 1990년 5월 총선에서 중도우파인 헝가리 민주포럼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헝가리는 43년간의 공산당체제가 붕괴된 것이다. 폴란드에서는 自由勞組가 1980년의 총파업을 통해 정치적인 조직체로 성장하였고 결국 국가는 이에 대해 쿠데타라고 하는 비상수단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그것도 얼마가지 않아 1989년 6월의 총선에서 이 사회세력에게 정권을 인계하게 되

169) Strokes, ed., *From Stalinism to Pluralism*, p. 150;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p. 36.

170)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었던 것이다. 루마니아에서는 1965년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제1서기에 취임한 이래 동구권 국가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장기집권을 기록하였다. 1989년 12월 16일 民衆蜂起를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체포되어 처형됨으로써 공산당체제가 붕괴되었다. 체코에서는 1968년 두브체크 서기가 취임하여 독자적인 사회주의노선 천명으로 프라하의 봄이 실현되었으나 동년 8월 바르샤바조약 5개국군 개입으로 실패했다. 1989년 10월 바츨라프 광장에서 민주화 요구 데모를 시작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게 되어 동년 11월 시민포럼이 결성되고 헌법에서 黨의 지도적 역할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였고 동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시민포럼의 대표인 하벨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동독에서는 1989년 8월 동독국민의 서방세계로의 대탈출을 시작으로 9~10월 라이프치히 등 대도시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동년 10월 호네커 書記長이 사임하고 11월에는 동베를린에서 백만인의 인파가 모여 민주화 요구의 시위를 전개하여 호네커의 후임인 에곤 크렌츠는 11월 9일 서독과의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나.北韓의 경우

(1) 억압적 통제하에서 選好僞裝과 外樣的 順從

소련 및 동구의 후기 전체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도 경제적 영역보다는 정치적 영역의 사적 사생활이 훨씬 미약하다. 그 까닭은 철저한 사회통제와 가혹한 처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헬싱키 선언 감시기구가 작동하고 있었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나 조직적 저항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남는 생존 전략으로서 선호위장과 외양적 순종을 구사하는 것 같다. 북한과 같은 엄격한 사회통제하에서 체제에 저항함으로써 입게될 개인적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공개적인 저항을 시도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로서는 개인주의적인 ‘합리적 선택’을 취하는 것이다.¹⁷¹⁾ 체제가 잘못되었다

171) 사회운동과정에서 개인의 행위양식에 관한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해서는 Jon Elster, ed., *Rational Cho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6); Michael Taylor, "Rationality and Revolutionary Action," in Michael Taylor, ed., *Rationality and Revolu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63~97.

는 것을 알면서도 남보다 앞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중을 동원하여 투쟁을 주도할 사람은 없으며, 國家의 문제점 개선보다는 내 個人的 목숨이 더 귀하다는 인식이 지배하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간에는 “죽은 양반 산 개보다 못하다”는 말을 자주하면서 “육체적 삶은 짧지만 永生하는 정치적 삶으로 살자”는 黨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빗대고 비아냥거린다고 한다. 아무리 충성해서 명예가 길이길이 빛난다고해도 살아있는 생애를 즐기겠다는 풍조가 휩쓸고 있다고 한다.¹⁷²⁾ 이러한 태도는 엄격한 감시체제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은 “자기 등짝도 못믿는다”는 말을 흔히 한다고 한다. 또한 방에 혼자 앉아서도 김정일에 대한 욕을 못할 정도로 심한 감시의 위협을 느낀다고 한다. 부모들이 자주 자식들에게 타이르는 말의 하나는 밖에 나가서 말조심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¹⁷³⁾

북한 주민들의 이러한 선호위장과 외양적 순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적인 행위양식을 야기시킨다. 첫째는 공적인 세계에서 물리적인 통제가 있을 때에는 질서에 순응하지만 통제가 없으면 사회질서가 매우 문란해진다고 한다. 외부의 통제가 있을 때는 원칙대로 순종하지만, 외부의 통제가 없거나 남의 눈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

172)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173) 귀순자 고청송, 어승일(1988.3.31 귀순)의 증언.

이다. 그것은 질서와 규율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의 통제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개인들이 社會化되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규찰대, 안전원이 없으면 북한사회는 아수라장이 될 만큼 사회질서는 강제에 의하여 유지되며 결과적으로 피상적인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에 질서를 유지하는 규찰대가 없으면 버스에 먼저 오르기 위하여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영화관에서도 규찰대가 몽둥이를 휘두르지 않으면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도로에서 교통안전원이 없으면 교통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아수라장이 된다고 한다. 식량배급소에서는 남보다 먼저 더 많이 타기위하여 질서가 매우 문란하다고 한다. 이렇게 질서가 문란한 이유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에 대하여 눈치를 보며 자기행위의 변호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¹⁷⁴⁾

외양적 순종의 두번째 행위양식은 사회주의체제, 김정일, 북한 당국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이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김정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해도 김정일을 비판하거나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 중에는 김정일이 야심이 너무 강하다거나, 매

174) 귀순자 박수현의 증언.

우 무섭고 혹독하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겉으로 표현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겉으로 표현할 때는 “지도자 동지가 성격이 무서우신 것 같애; 지도자 동지 앞에서 간부들도 한번 잘못하면 모가지 떨어진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한다고 한다.¹⁷⁵⁾

그러나 이들이 불만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 불만의 대상이 金正日이나 사회주의체제가 아니라 중간 간부라는 점에서 이중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옛날 보다 못산다는 불만을 할 때 그것은 김정일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중간간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¹⁷⁶⁾ 김정일 밑의 간부들이 김정일의 지시를 옹기 이행하지 않으며 利己主義와 부정부패에 탐닉해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간간부들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지 않으며 자기욕심, 진급에 급급하기 때문에 북한이 잘못산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의 中間幹部들은 임용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변의 돈있는 사람에게 자리주고 돈을 끌어모아 자기 집을 짓는 일이라고 한다. 간부

175) 귀순자 윤웅의 증언.

176)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통일이 되어야 북한이 잘 살 수 있으며 통일이 안되면 영원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한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들은 月給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賂物로 사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기 보호를 위해 상부에 虛偽報告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인식하고 있다.¹⁷⁷⁾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에게는 공공연히 욕할 정도로 적대감이 심하다고 한다. 못먹고 못사는 것을 中間幹部의 잘못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간부들의 책임과 김정일의 책임이 확연히 구분되어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神聖不可侵의 절대자로 偶像化되어 있는 독재체제에서 個人이 생존하는 합리적인 전략적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압적 체제하에서 개인의 안전을 최우선 전략으로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행위양식은 정치적 私的 自律化의 한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2) 集團別 차이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양식은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주민은 身元文件에서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으로 분류되어 있으며¹⁷⁸⁾ 이들 세 집단은

177) 귀순자 윤웅, 김태범, 안혁, 남명철(1990.4 귀순)의 증언.

178) 간부들은 이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해외경험을 하여 외부의 정보에 접하고 있는 고위간부들은 북한의 사회주

정치적 의식에 있어서 매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⁹⁾ 그러나 어느 집단이든 僞裝選好와 외양적 순종을 합리적 선택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핵심군중과 기본군중은 대체로 북한체제에 통합하여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써 출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체제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일에 대한 이상화교육과 김정일의 교시에 의한 學習의 效果가 다른 어떤 집단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기존체제와 김정일에 대하여 자발적인 복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일성에 비하여 김정일의 권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무모한 것이기 때문이다.¹⁸⁰⁾

김정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50대 후반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젊은 세대는 김정일을 당연한 後繼者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 세상의 전부이라네”라

의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

179) 「평양방송」, 1994.11.5, 김정일의 연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참조.

180) 귀순자 안혁과 윤웅의 증언.

는 노래를 당연시하고 자연스럽게 부르곤 한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미 완전히 신격화되어 있으며 김정일을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정일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한다. 개인의 어려움이나 불행에 대하여는 개인의 팔자탓으로 돌리며 制度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른 교양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경험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어떠한 다른 정보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서 맹목적으로 順從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核心群衆과 基本群衆은 암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뇌물을 주고 받기는 해도 사상적으로는 철저하다고 한다. 사회주의가 나쁘고 자본주의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꿈도 못 꾸는다고 한다. 김정일의 교시나 말씀은 정확히 맞다고 본다. 그런데 핵심군중과 기본군중도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하여 비판을 하지 않지만 중간간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한다.

‘복잡한 군중’의 경우는 사회적 통제와 감시를 더 많이 받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중적 태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체제로부터 인정받아 黨員이 될 것이라는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다. 복잡한 군중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은 가족 중에 김정일의 통제정책에 위반자로 걸려 피해를 본 사람들,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유학생이나 成分不良者처럼 체제로부터 이미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로서 대체로 북한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기본균중처럼 체제에 통합되어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출세하기 보다는 개인주의적 實用主義에 탐닉해 있는 경우가 많다.

복잡한 균중들도 역시 김정일에 대하여는 감히 비판을 못 하지만 중간간부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히 적대감을 표출한다고 한다. 간부들에 대한 불평불만은 그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옛날에는 찾아볼 수 없던 抵抗的 行動이 일상생활에서 노골적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식량배급이 연기되거나 중단되면 배급소에 주민들이 몰려가서 항의를 한다고 한다. 당간부들이 간부직위를 악용하여 다 떼어먹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서 분개하여 저항한다고 한다.¹⁸¹⁾ 暗市場에 물건을 거래하는데 안전원이 장사를 못하게 하면서 좌판을 뒤집거나 물건을 뺏으면 안전원을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골적인 반항을 한다고 한다. 나라에서 먹고 입을 것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면서 반발을 한다고 한다.¹⁸²⁾

이러한 반항에 대해서 처벌도 관대해진 편이라고 한다. 나 이든 사람일수록 현재의 체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가령 “왜정때 보다 못하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데 몇

181) 귀순자 박수현, 윤웅, 김길송의 증언.

182) 귀순자 박수현도 이러한 저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라고 증언하였다(1994.11.1 인터뷰).

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면 政治犯으로 몰렸지만 요즘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긴다고 한다.¹⁸³⁾

‘복잡한 군중’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집단은 외국경험을 한 유학생이다. 북한에서는 좋은 아이들 외국유학 보내면 완전히 반동이 되어 돌아온다고 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해 감시원 1명을 붙여 유학생 출신간 접촉, 해외 목적내용 발설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도록 하면서 6개월마다 1회씩 집체사상교육을 시키고 身元文件에 ‘유학생출신’임을 기록, 소속직장 당세포와 주거지 인민반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當局에서는 성분이 제일 나쁜 것으로 분류하여 문건에 기록하여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⁸⁴⁾

1990년 8월경 북한은 소련, 동구 유학생들을 대거 송환, 인민대학습당에서 6개월간의 귀국총화를 실시하고 문제없는 학생들은 원래 소속대학에 배치, 학습을 계속하도록 하고 문제 유학생들은 탄광 등지에서 3년간의 革命化勞動 후 노동자로 배치하였다고 한다.

유학경험자들이 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지에 대해서는 실

183) 귀순자 여만철의 증언.

184) 귀순자 윤웅의 증언; 중국유학생 이정철(1993.9.23 귀순)의 증언.

제로 중국유학생들의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유학 출발시는 조국의 배려로 유학을 가니까 黨과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학습을 잘하여 조국에 돌아와 조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고 각오하지만, 유학 직후 北京의 상점에 쌓인 물건을 보고 중국이 북한보다 크고 발전해 있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1년차는 실습생 통제하에 많은 북한인들이 같은 기숙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직 통제에 잘 순응하며 대부분이 최우등(90점 이상) 성적을 받는 등 열심히 공부한다. 중국대학생과 외국유학생들로부터 단체행동 및 단체복 착용, 김일성 배지 패용, 기숙사에 김일성 초상화 부착 등에 대해 비웃음을 당하거나 개인숭배,父子 권력승계에 대한 비판을 받을 때는 말다툼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체제를 옹호한다고 한다.

2년차는 북한현실과 중국을 대비해보고 “북한이 갈수록 한심해진다, 우리도 개방해야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발전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선배들이 “북한의 현실은 金父子 때문이다”라고 비난하는데 차츰 동조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규정을 어기고 단독 외출, 극장, 디스코장을 출입하며 외국인접촉 등 自由主義에 관심을 두나 학업에 소홀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3년차부터는 학업은 그러저럭 낙제만 면할 정도로 하면 된다는 자세이며, 김일성은 “할아버지,” 김정일은 “찌끄만 사람”으로 함부로 부르면서 “조선이 통일안되는 것은 金父子 때문이다,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만 조선이 잘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조직책임자를 비롯 상호목인하에 외국여자와 교제하거나 무단 여행 및 중국친구집에 수일간씩 체류하는 등 생활이 문란하며 부족한 유흥비 조달을 위해 방학 후 중국에 돌아올 때 오징어, 멸치, 조개살, 명태, 해삼, 인삼 등을 갖고와서 판매하거나 면세카드로 상품을 구입해 수수료를 얻어쓰는 등 돈벌이에 눈을 돌리게 된다고 한다.

졸업을 앞두고는 자유를 맛본 자신들이 북한에 돌아가 어떻게 살까, 귀국 후 어떤 간부에게 줄을 댈 것인가를 궁리하고, 얼마남지 않는 유학생생활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여자와 교제하면서 귀국시 가져갈 텔레비전, 냉장고 등 일상생활용품 구입에 열중한다고 한다.¹⁸⁵⁾

외국유학생의 의식변화 과정에 대한 귀순자들의 이러한 증언은 향후 북한체제가 對外情報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견게 될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낙인찍히고 당국으로부터 감시받으며 간부로 등용되기도 힘든 상황에서 유학출신 학생들은 反體制行動도 시

185) 귀순자 이정철의 증언.

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년 초 김일성종합대학의 해외유학 복귀생들이 주축이 되어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이과대학, 평양의학대학 학생들까지 망라한 반체제 결사조직(구성원 100여명) 구성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 조직은 해외거주 지지자들로부터 活動資金을 지원받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조직원들은 은밀히 출신학교인 각 道의 제1고등중학교에까지 가입자 규모를 확대시켜 평남 평성 제1고등중학교에서도 졸업반 6학년생 2명이 결사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보위부에서 주변 동료학생이나 부모도 모르게 체포해간 바 있다고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양시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전대협에 해당하는 조직이었다,” “체포된 학생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으므로 전원 처형되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1993년 말 함경남도 함흥에 본부를 두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반체제 조직이 결성, 군대식 편성을 하고 조직원마다 직책을 부여하여 武裝蜂起를 기도하다가 조직원 전원이 검거되어 총살형을 당하거나 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사건도 있었다고 한다.¹⁸⁶⁾

1988년 상해 화동 화공학원 고분자화학과에 재학중인 김

186) 귀순자 윤웅의 증언: 윤웅은 평성1고등중학교 교원이면서 소년지도원인 자기 형수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윤웅은 북한 주민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

영성(26세, 前 과학원 연구사) 및 상해 기계대학생 김원전(25세, 원산수산대 수료) 등 2명은 천진에서 어학연수시 같은 방에서 생활하며 남한방송을 청취, 남한발전상을 알고 북한체제의 허구성을 인식하고는 反體制 활동을 하기로 결의하였고, 1989년 말부터 동료 유학생들에게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등 反體制 輿論을 확산시키면서 중국내 북한유학생들을 중심으로 반체제 「한국청년단」을 결성하였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1990년 8월 강습차 북한을 방문한 김영성은 과학원친구, 친지, 동창 등 5명을 규합,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하고 意識化學習을 전개하다 카세트 라디오 구입 사실에 혐의를 두고 계속 미행 감시를 해오던 국가보위부에 피검되어 조사중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였다고 한다. 김원전은 1991년 10월 중국으로 파견된 국가보위부 요원 2명에 의해 체포되어 다리를 기부스하여 환자로 위장, 평양으로 압송되었다고 한다.¹⁸⁷⁾

1993년 3월 함흥주둔 7군단 부사령관(명미상, 중장)이 주축이 되어 인민무력부 장령(장성) 30여명이 가담한 체제전복 기도 사건이 국가안전보위부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한다. 쿠데타 주동자들은 김일성 父子體制下에서는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전쟁도발

187) 귀순자 이정철의 증언.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는 명분하에 IAEA의 북한 핵사찰시 거사를 일으키면 국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쿠데타를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은밀히 모의해왔던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한다. 체포된 가담자들은 대부분 러시아 군사아카데미 출신으로 주모자인 7군단 부사령관은 처형되고 30여명의 장령들은 대부분 러시아와의 제반관계를 고려, 러시아로 추방되었고 同 사건에 연류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인민무력부 부부장이며 南北高位級會談 대표였던 김광진은 김경희와의 친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한다.¹⁸⁸⁾

1992년 8월 함흥수리대학 수리공학부 학부장(58세)은 “남조선은 잘 사는데 북조선은 못산다”라며 학생들 앞에서 북한체제 비판혐의로 국가보위부에 적발되어 처벌 받았다고 한다.¹⁸⁹⁾

이밖에도 1980년 후반부터 해외문물과 사상에 접한 유학생이나 지식인들이 金父子體制에 대한 개혁요구 및 불평불만을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¹⁹⁰⁾

188) 국가안전기획부, 「최근북한실상」(1994.2), pp. 8~10; 귀순자 윤웅의 증언. 윤웅은 총참모부 포병사령부 전자전지휘부에 근무하는 자기 친구에게서 들은 사실이라고 한다.

189) 귀순자 이정철의 증언.

190) 통일원, 「최근 북한주민 의식변화 동향」에 있는 다수의 사례 참조 할 것.

3. 小結

이상의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정치적 영역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은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믿음보다는 개인주의적 實用主義를 선호하고 있으며 정권과 체제에 대해서는 外樣的 順從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싱키 선언 감시기구가 작동하고 있었던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와는 달리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體制抵抗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동구 및 소련과 비교해 볼 때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 중에서 정치적 영역의 사적 자율화가 가장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이미 體制批判의 싹이 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아직 미치지 않지만 간부들을 겨냥한 비판은 매우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외부의 자유화 바람이 조그만 더 들어오거나 현재의 의식에 質的 變化가 생기면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 미치는 정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은 二重的이라고 볼 수 있다. 처벌이 무섭기 때문에 외양적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불만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中間幹部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양식의 選好僞裝 및 外樣的 順從에 관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북한에서도 물리적 통제가 약화될 경우에는 외양적 순종이 공개적 저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문제는 북한에서 공적인 물리적 통제가 언제 얼마만큼 약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다.

第 V 章 結 論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을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경우와 比較社會的 시각에서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 정치적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공적 원칙의 준수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더 선호하며 理念的 가치보다는 物質的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한 결과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私的 自律化(privatization)가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사회의 이러한 변화는 1990년 이전의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미약하지만, 變化의 방향면에서는 소련 및 동구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공적 세계와 공적 가치는 점차 위축되고 사적 세계와 사적 가치가 점차 확산되는 것이다.

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적 자율화의 징후는 第 2의 經濟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시장 및 개인소유주의가 성행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간에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적 의식이 확산되었다.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지배적 가치는 정치적으로 인정받아 公的 부문에서 출세하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돈을 버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확산되고 있

다. 암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선호하는 등 체제의 지배적 가치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전체인구의 60%에 가까우며 약 40%의 주민들만이 체제에 통합하여 기존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속하게 전개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이렇게 제2경제가 확산하게된 계기는 거시적으로는 경제가 침체했다는 사실이며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김정일이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중국과 邊境貿易을 허용하자 중국의 상인들이 밀려들어 왔다는 점이다. 또 한편 8·3인민소비재생산운동과 합영법의 실시로 私的 영역이 일부 허용되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약간의 경제적 개방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 의식에 급속한 변화를 야기시킨 것이다. 위로부터 주어진 제도적 변화와 아울러, 경제가 침체함에 따라 주민들이 생계획득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暗市場을 발달시킨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 들어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하게 되자 부족한 생필품 확보를 국가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독자적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되면서 암시장을 발달시켰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개인, 원초집단, 2차집단, 국가의 네 수준에서 모두 사적 영역이 점차로 확대되고 있다. 관료제의 견고한 벽을 개인의 연줄을 활용하여 집단이익 보다는 개인

적 이익을 선호하는 逸脫行爲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엄격한 대외통제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문화가 유입하여 사회주의 지배문화와는 이질적인 下位文化를 형성해가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와 사회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는 서로 상호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의 정도는 다른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 비해서 미약한 편이다. 소련 및 동구의 경우도 정치적 영역에서의 사적 자율화가 다른 영역에 비해 미약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에 공통적인 것으로서 政治的 抵抗에 대한 가혹한 처벌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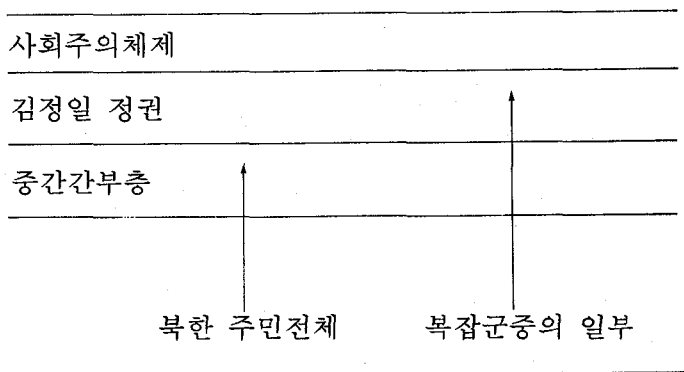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도 동구 및 소련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배이데올로기가 퇴색하고, 일정한 방향의 정치적 자율화가 나타나고 있다. 가혹한 정치적 통제하에서 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外樣的 順從인 것이다. 외양적 순종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과 중간간부에 대한 차별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에 대하여는 감히 비판을 못해도 중간간부들에 대하여는 매우 적대적이다.

이렇게 김정일과 중간간부들에 대하여 차별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소련 및 동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억압적인 전체주의체제에서 개인들이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고 생존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김정일에 대한 비판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정치적 처벌 때문에 회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처벌이 관대한 중간간부들에 대한 비판은 매우 공공연하다고 한다. 주민들은 당간부들에 대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착취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간부들이 간부직위를 악용하여 다 떼어먹고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면서 분개하여 저항한다고 한다.

비판의 화살이 김정일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지만 중간간부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판한다면 김정일에 대한 順從도 이미 外樣的 순종에 불과한 것이다. 중간간부를 겨냥한 비판은 김정일의 지도력이 취약해지거나 경제회생이 지연되면 김정일과 사회주의체제에까지 비판의 화살이 미칠 수도 있을 것

〈그림 1〉 집단별 抵抗意識의 대상



이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와 일탈행위의 확산은 단순히 사회적 病理現象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회변화의 지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의 상당 부분이 국가의 公式 分配通路를 통하여 인민들에게 공급되지 않고 암시장으로 흘러나가는 등 이미 유통구조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태동하고 있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개혁을 기피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體制改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았고, 지도부의 통제할 수 없는 비공식 제도 및 의식체계가 공식제도 및 공식가치체계와 함께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들이 사회주의체제를 비판하는 결과 전개된 의도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自然發生的으로 전개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사회에서 第2社會(second society)가 형성되었듯이 북한에서도 제2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2사회는 완전히 발달된 새로운 사회의 모델이 아니라 그러한 모델을 향한 맹아이며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형태의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촉매 역할을 한다. 제1사회와 제2사회는 확연히 대립되

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치고 연결되어 있다. 헨키스가 지적한대로 제2사회는 제1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안전밸브이며 제1사회의 역기능을 보완해주는 기능도 한다. 그러나 제2사회가 형성되면 제1사회에 대한 흥미나 신뢰는 당연히 쇠퇴하게 되며 두 사회 사이의 간극은 더욱 커져서 주민들의 가치의 二重性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사회의 경우 제2사회가 결국은 제1사회를 전복하였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 북한에서도 미약한 정도나마 제2사회의 조짐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현재의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을 體制抵抗이라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의 내용은 反體制的 저항의식이라기 보다는 물질주의적 實用主義에 더 가깝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것은 결국은 집단주의적, 전체주의적 사회에서 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갈등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의 복잡한 군중 중에서 체제저항을 시도하는 사례도 가끔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유학생 출신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김정일을 비판하는 내용의 삐라 및 낙서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은 큰 변화의 하나이다. 주민들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군중으로 분류하여 차별적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에서 핵심계층은 체제에 통합하고 있지만 복잡한 군중은 意識變化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革命的 理念으로 社會的 動員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의식이 팽배하다면 국가의 動員이데올로기는 설득력이 미약해질 것이다. 최근들어 북한에서 사상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게 된 요인도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사회주의 이념을 대신하는 自由主義, 物質主義를 지향하는 가치의식이 발달한 데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한의 경제침체와 주민의 가치변화는 북한체제의 변화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북한체제가 경제회생을 위하여 적극적인 對外協力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도부가 아직 이렇다할 정책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그 영향력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政治的 저항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의례적이거나 순종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침체가 더욱 장기화된다면 기존의 암시장을 통한 생필품조달 양식은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며, 변화하는 사회의식도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다. 물질적인

보상이 없는 사상통제와 물리적 통제는 外樣的 順從이라는 이중적 태도를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외양적 순종은 감시와 처벌 앞에서 위장된 것이기 때문에 순종을 강요하는 무력이 약화되거나 또는 무력의 정당성이 실추되거나, 또는 무력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인민대중의 힘이 조직화될 때는 공개적인 저항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직화된 저항 못지 않게 무서운 것이 인민대중 대다수의 無抵抗主義的 국가불신을 조장하는 의식의 변화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체제의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가치의식이 이렇게 개인주의적으로 그리고 체제일탈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와 인간 본질의 괴리에 있지만 그러한 괴리를 촉진하는 두 가지 주요 요인의 變移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중국이 개혁·개방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상인과 상품 및 정보가 유입되었다는 對外的 要因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침체라는 對內的 要因이다. 주민들의 의식을 크게 변화시킨 이들 두 가지 요인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및 일본과 관계개선을 할 경우 外部情報의 유입은 더욱 증대될 것이고, 경제회생은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며 본격 경제회생의 프로그램이 실천되기까지는 당분간 경제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Ⅲ)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北韓 官僚腐敗 研究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權力基盤 研究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方向과 南北關係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政勢認識: 對南觀·對外觀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北韓 住民의 價値意識 變化研究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朝鮮戰史의 解除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94-22 北韓의 急變事態 類型 및 韓國의 對應策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統一情勢分析〉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1994.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研究報告書 94-23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12월 일
發行日 1994년 12월 일
